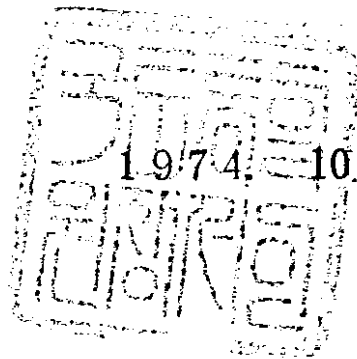


共 産 主 義 戰 略 戰 術 에
關 한 研 究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0.

研究責任者 : 鄭 烘 垠



目 次

一. 序	3
二. 「마르크스·엥겔스」의 社會革命	5
三. 레닌의 革命 戰略 戰術	10
四. 코민테른의 戰略·戰術	15
五. 東歐의 共產化戰略	21
六. 스탈린의 戰略·戰術과 아세아 共產主義 運動의 戰略·戰術	29
七. 毛澤東의 革命戰爭 戰略·戰術	27
<hr/>	
八. 現代共產主義戰略의 潮流	43
九. 共產主義 戰術形態	52
十. 結 論	79



一. 序

北韓은 統一을 革命의 問題로 断定하고 所謂 「南朝鮮革命」이 遂行되어야 궁극적 統一(革命)이 完遂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時点에서 그들의 戰略·戰術을 보다 正確히 分析 把握해야 하며, 그러기 爲해서는 그들이 援用하는 共產主義 戰略과 戰術을 歷史적으로 그 諸類型을 分類하고 그 特徵, 目的, 方法을 보다 客觀的, 科學적으로 分析 批判해야 할 必要에 接하게 된다.

무릇 共產主義란 階級革命에 依한 既存의 國家體制(資本主義體制)을 打倒하고 共產黨이 支配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재체계를 確立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政治 理念이며,

共產主義 戰略 戰術이란 資本主義體制를 打倒하기 爲한 革命의 方向과 原則을 定立하고 具體적인 鬪爭의 方法, 手段을 決定짓는 技術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共產黨의 戰略 戰術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그것을 歷史적으로 考察해볼 必要가 있다. 모든 戰略과 戰術이 歷史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變하게 되고 隨해 있는 社會環境에 따라 달라지며 그 時代와 社會環境의 產物이라는 運命을 지니게 된다.

어느 時代 어느 社會環境이나 一律적으로 適用되는 不變의 共通的인 것이란 있을 수 없다.

레닌이 強調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 戰略 戰術은 恆常 伸縮性 있고, 適應性 있는 것이다.

毛澤東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教義를 現在 處해 있는 具體的
現實에 알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強調하고
있다.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가장 核心的인 命題는 非共產國을 共產化하
는 것이다. 即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로의 移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17年 러시아의 10月 社會主義革命 以來 이 地球上
에는 유고슬라비아, 쿠바를 包含하여 13個의 共產主義 集團이 存
在하고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 戰略 戰術은

첫째, 非共產 國家안에서 共產黨과 共產主義者가 취하는 戰略戰術과
둘째, 共產國家가 世界共產化를 目標로 非共產國家에 對하여 取
하는 共產化戰略과 戰術로 나누어 살펴 볼수 있다. 共產主義 本
質은 個個의 共產政權 내지는 個個의 共產黨에 따라 差異를 나타
내고 있으며, 戰略·戰術에 있어서도 變化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에 留意하여 「마르크스·엔겔스의 社會革命論」,
「레닌의 戰略·戰術論」, 「스탈린의 戰略·戰術」, 「코민테른의
戰略·戰術」, 「毛澤東의 戰略 戰術」을 「歷史的으로 살펴 보면서
거기에 內在하는 普遍性和 共通性을 끄집어 내는 方便 後進諸國에
서의 戰略·戰術을 分析 研究코자 한다.

二. 「마르크스·엔겔스」의 社会革命論

1848年 共産党宣言이 發表된 當時의 歐洲社會는 大變革의 소용돌이속에 있었다. 産業革命으로 因한 社會構造上的 革命과 政治的 覺醒과 革命的 情勢를 鑒비시킨 프랑스大革命을 背景으로. 資本主義의 모순과 病弊를 진랄하게 攻讎하고 私有財産의 撤廢와 社會改革을 主張하는 社會主義 思想이 抬頭하였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勞動運動의 成長等이 이 時代를 特徵짓고 있다.

바로 이러한 時代에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後進國 獨逸에서 成長하고 거기에서 初期活動을 展開한 것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그의 哲學 및 經濟學 理論을 土台로 「社會改革論」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 戰略·戰術이라고 特記할만한 것은 別로 없다. 다만 그 後繼者들이 發展시킨 戰略戰術에 커다란 影響을 미친 것으로는

- (1) 社會發展의 歷史的 必然性
- (2) 國家를 超越하는 階級意識
- (3) 暴力革命
- (4) 多數者革命
- (5)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등을 들수 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史的 唯物論(唯物史觀)에 土台를 두어. 生産力의 發展과 더불어 資本은 少數의 부르조아에게 集中되고 入口의 多數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 大衆은 날로 빈곤에 처덕

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프롤레타리아大衆의 反抗도 增大하여 이들은 階級意識을 覺醒하고 단결하여 組織化한다. 生産手段의 集中과 勞働의 社會化는 드디어 資本主義的 體制와는 兩立할 수 없는 時點에 이르게 되어 資本主義體制에 弔鐘을 울리게 되며 革命을 通하여 社會主義體制가 出現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은 人類歷史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生産力의 發展에 기인하는 「必然的인 過程」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이러한 必然的인 歷史의 發展過程을 뛰어 넘을 수도 없으며 阻止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人間이 歷史를 創造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人間이 自己가 願하는 대로 任意로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歷史的 狀況下에서만, 即 歷史의 必然法則에 順應해서만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르크스와 英겔스는 國家를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억압하기 爲한 強制械梅라고 보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階級에게는 自由이 있을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은 物質的 生産力이 高度로 發達한 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만 期待될 수 있다는 것이다. 「共產主義原理」(1847年)에서 英겔스는 당대의 先進資本主義國家인 英國·프랑스·美國·獨逸에서 조만간에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날 것이라고 預言하면서 러시아나 스페인같은 後進國에서의 革命可能性은 否認하였던 것이다. ① 이러한 預言과 否認은 마르크스나 英겔스가

史的 唯物論에 根拠를 두고 資本主義의 矛盾을 파헤치는데 專念하여 資本主義社會崩壞의 歷史的 必然性을 강조한 나머지 革命勃發의 「場所」를 資本主義發達地域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誤謬였다. 後日 共產化革命의 「場所」가 史的 唯物論의 圖式的 立場을 떠나 後進國 내지는 資本主義가 未로익지 않은 곳으로 代置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史的 唯物論을 特定國(러시아, 中國을 비롯한 余他共產國)의 容觀的 狀況에 創造的으로 適用시킨 레닌·스탈린 그리고 毛澤東의 努力의 結果였다.

또한 革命의 「時期」면에 있어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디까지나 生産力發展에 따른, 既存의 生産關係와 生産力間의 矛盾이 극도로 高調된 時期가 到來하여야만이 비로소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革命担當主體階級면에서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社會主義革命을 주도할 階級으로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은 圧倒的 多數者의 利益을 위한 圧倒的 多數者의 目的的인 運動이라는 것이다. 農民階級이나 中産階級은 모두 다 壓迫의 수레바퀴를 逆轉시키려는 反動階級이며, 프롤레타리아階級만이 부르주아지를 打倒할 수 있는 革命担當階級이라는 것이다. 革命의 主役을 担當할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發生, 成長 그리고 이들에 의한 革命의 遂行道 역시 物質的 生産力의 反映에 의한 것이기 결코 人間意識의 產物은 아니라는 主張이다.

마르크스·엥겔스가 史的 唯物論에 土台를 두고 展開한 社會革命理論은 物質的 生産力의 發達에 依한 「아래로 부터의 革命」

말스는 資本論에서 「暴力은……새로운 社會를 낚는 낚은 社會의

한다는 것이다.

暴力에 依하여 支配階級の 權力機關을 打倒하고, 暴力을 掌握해야
手段에 依하여 自身들을 保護하고 있다. 따라서 勞動者階級은
側面은 暴力革命論이다. 支配階級은 혁명手段으로 武力이라는 強制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社會革命論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重要な
지 相當한 期間에 걸쳐 持續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過渡的인 것이지만 社會變革의 成就를 배 꺾

論이 나오게 된다.

移行에 先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
勞動者階級에 依한 國家權力의 掌握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政治權力의 準備을 위한 하나의 準備過程에 不過한 것이다.
少數者의 反對로 因하여 妨害받게 될 것이며 結局 選擧에서의 勝利
社會主義 經濟體制에로의 平和的인 移行은 武力을 掌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選擧를 通過 社會主義者들이 多數派가 되도록
即 社會主義 政黨은 選擧에 參與하여 다른 政黨과 競爭하려는
組織訓練을 爲하여 資本主義國家의 代議制度를 活用한다.

支配階級の 政黨에 對抗한 政黨은 인들이 活動하며, 勞動者階級の
층의 부분하면 貧窮化된 勞動者 階級은 社會主義運動을 通過
Von Open) 라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

몇몇 職業革命家들에 依한 「위로부터의 革命」(Revolution

「Revolution von Unten」이었다.

助産婦』라고 말하고 있다.

要컨대 맑스와 엥겔스의 社會革命論은 增大하는 富穢에 依한 壓倒的 多數者의 自主運動으로서, 政權의 탈취를 위하여 暴力의 行使를 시사하고 있지만, 暴力만이 唯一의 길은 아니다. 選舉를 통한 議會에서의 支配의 方法도 可能하다는 伸縮性과 複雜性을 보여 주고 있다.

如何든 資本의 集甲이 貧困을 增大시키고, 나아가 資本主義의 沒落을 招來한다는 「資本論」에 土臺를 둔 마르크스~엥겔스의 社會革命論은 종래 實現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엥겔스의 予言과는 달리 産業革命期의 急發現象을 克服한 先進資本主義諸國은 1870年代以來 技術의 發達과 植民地獲得等으로 因한 利得으로 急進的인 富의 蓄積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翻期的인 生活向上을 가져 왔다.

이러한 狀況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暴力革命에 依한 부르주아政權의 打倒보다는 現存體制內에서 生活水準의 向上을 爲한 經濟鬭爭에 더 關心을 쏟게 되었다.

Karl Marx, Capital, Chap 24 ed. by Frederick Engels, (New York, Z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三. 레닌의 革命戰略과 戰術

마르크스~엔겔스의 古典的인 社會革命論을 具體的으로 實踐한 戰略家는 레닌이다.

理論家로서의 立場이 알겠든 마르크스의 主要關心事項은 資本主義였는데 反해 마르크스主義를 러시아의 具體的인 條件에 適用한 實踐家로서의 레닌의 主要關心 事項은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서의 帝國主義였으며, 帝國主義諸國家間의 戰爭을 內戰化하여, 武裝暴動의 結果로서의 社會主義를 러시아 땅에서 遂行한 張本人이 레닌이었다.

爲先 레닌의 戰略戰術을 要約해 보면, 우선 革命의 時期에 屬하여,

마르크스는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으로 生産力이 더 以上 發展할 수 없을 때를 革命의 때로 본데 反해, 레닌은 生産力의 發展程度에는 關係없이 戰亂의 革命集團인 共産黨이 組織되고 社會的 混亂이 極度에 達하여 支配階級の 勢力이 弱化되었을 때의 好機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1次 世界大戰에서의 連戰連敗와 國內에서의 亂수립과 인부레이션, 그리고 짜르 政府의 無能과 分裂等으로 不滿에 가득찬 러시아 人들에 依해 惹起된 政治, 經濟, 社會 및 軍事的 混亂에 직충시킨 것이 1917年 2月革命이었으며, 2月革命에 依해 탄생한 臨時政府가 그 能力을 發揮할 時間的 여유도 주지 않은채 이를 다시 전복한 것이 10月革命이다.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可能한 곳은 先進資本主義國家가 아니라, 所謂 帝國主義의 식사슬이 가장 弱한 後進國이라는 것이다. 成長段階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階級은 人口의 大多效를 차지하고 있는 貧賤階級과의 同盟에 依하여 遂行된다는 것이다.

事實上 10月革命은 볼세비키 共產黨의 指導下에 都市勞働者와 貧賤出身인 無產階級의 兵士들에 依하여 遂行되었다.

레닌은 暴力革命만이 政權을 奪하는 唯一한 手段이라고 믿고, 테러活動, 武裝테오, 武裝단체에의 침투 및 이의 장악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였던 것이다.

볼세비키는 赤軍隊에 침투하여 죽음의 戰線으로 出陣하는데 不安을 품고 있는 將兵들에게 厭戰思想과 反戰思想을 고취하여 이들의 銃부리를 國內로 돌리게 하는데 成功했던 것이다. 軍隊안에 볼세비키組織을 形成하고 軍隊指揮官의 監督權의 소멸에 依하여 軍의 規律을 파괴하고 軍에서의 모랄現象을 촉진시켰다.

레닌의 革命은 都市의 占領이 權力奪取의 先決條件이며, 都市에서 爭取한 革命의 열매를 漸次的으로 農村으로 波及시키는 戰略에 依存하였다.

볼세비키의 革命陰謀는 都市에서 進行되고 都市의 掌握에 最大의 努力이 傾注되었다. 都市에서의 武裝暴動戰略은 신속한 決戰에 依存하고 있다. 政府軍은 一擊에 붕괴시킬 수 있는 決定的인

武裝力을 一時에 動員하여 政治權力을 導取하려는 것이다. 事實上 10月革命은 軍事的인 陰謀로서 이들 사이에 成就된 革命이다.

中國共産黨이 農村을 根柢로 持久戰略에 依存하여 22年間の 투쟁을 通해 政權을 掌握한 것과는 對照를 이룬다.

레닌의 共産主義戰略戰術에서 노정되는 特徵으로 前衛部隊로서의 黨을 中心으로 한 武裝鬭爭을 들 수 있다. 레닌은 階級意識을 가진 戰鬪的인 職業革命家가 결속한 黨을 中心으로 「위로부터의 革命」을 意圖的으로 惹起해야 한다고 主張. 暴力鬭爭을 具體化

했다. D Carew Hunt,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New York: ...)

레닌이 展開한 革命的 黨으로서의 共産黨의 組織原理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武裝鬭爭을 展開하여 政治權力을 장악하고자 하는 戰鬪的 政黨인 共産黨은.

共産主義目的에 献身할 수 있는 「職業的 革命家들」로써 構成되어야 하며.

「訓練된 少數의 精粹分子」로써 構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産黨員은 革命에 있어서. 數 많은 兵士들을 戰爭터에서 現地調達하여 이들을 指揮統率할 職業的 將校요 下士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黨은 「閉鎖的 組織」을 特性으로 한다. 그리고 이 黨은 「秘密」에 土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닌은 武裝鬭爭에 관하여.

必要時 언제나 使用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黨이 直接 갖고 있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共産黨의 窮極的 目標인 政權 탈취는

武裝鬭爭을 통해서만 可能하다. 武裝鬭爭의 手段으로서의 武裝部隊의 確保는 決定的으로 重寶한 意義를 갖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武裝部隊는 奪權鬭爭形態와 方法面에 관하여 레닌은 奪權鬭爭의 具體的인 方法을 마르크스에 비해 暴刀에 호소하는 政治的인 鬭爭形態를 강조하고 있다. 레닌은 決定的 時期에 短期間의 都市 暴動戰術에 의해 既成政權을 打倒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닌이 1906년에 刊行한 「빨찌산戰」에 따르면, 빨찌산活動의 目標은^①

첫째, 軍과 警察 및 政府의 高級官吏나 下級官吏를 射殺하려는데 있고 둘째, 政府나 特定個人으로 부터 ~~資~~ 資_金을 奪取하는데 있다고 말하므로써 此의 活動과 資金의 奪取活動으로 局限시키고 있다.

그러나 빨찌산活動은 「自由獲得의 鬭爭手段이며, 危機가 심각해짐에 따라 守勢로 부터 攻勢로 履行할 것, 데모나 罷業같은 活動은 蜂起의 從屬的인 手段으로 할 것, 戰鬭隊는 黨의 것뿐만 아니라 無黨派의 것도 組織할 것, 軍隊에 對한 전투工作의 強化, 勞動者, 農民의 「行動統一」 등의 諸原則과 「빨찌산」活動을 黨의 統制下에서 展開할 것 등을 強調하고 있다. 다음으로 레닌의 戰略 戰術의 特異點으로 「後進國에서 革命의 可能性을 提起했다는 點을 지적할 수 있다.

「마르크스·엥겔스」는 歐美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의 革命을 說明했지만, 「레닌」은 後進國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을 舉論하고 있다. 즉 資本主義國家 相互間에 必然的으로 惹起되는 戰爭으로 因해 資本主義가 發 達한 後進國 또는 統治力이 弱한 植民地에서 勞動者들

이 支配國에 對해 亂을 일으켜 革命을 成就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E.M. 열」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레닌」에게 있어서 決定的인 重要性을 가지는 問題는 國家間의 帝國主義戰爭을 內戰—「러시아」內에서의 內戰뿐만 아니라 國境을 넘어서 廣範한 社會革命을 促進시키는 內戰—으로 轉換시키는 方法을 發見하는 데 있었다』

여기에서 「레닌」이 示唆하고자 하는 바는 「러시아」에서의 社會主義革命과 世界革命을 위해서 그 先行條件으로서 帝國主義戰爭의 內戰化가 不可欠하다는 點을 強調하자는 데 있었다.

「레닌」에게 있어서 帝國主義의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 되어 있고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原料供給市場의 確保 그리고 過剩資本의 輸出을 위해서는 植民地가 必要하거나와 이 植民地의 平和的 分割의 不可能性 때문에 資本主義國家間의 植民地 爭奪을 위한 帝國主義 戰爭이 不可避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帝國主義戰爭의 不可避性을 前提로 하여 帝國主義戰爭을 內戰으로 轉換시켜 帝國主義國家의 支配階級이 軍事的 敗北의 結果 危機狀態에 到達하게 되는 狀況을 利用하여 社會革命을 遂行코지 하였다.

이러한 『帝國主義戰爭의 內戰化에 依한 後進國에서의 革命可能性 掘起』 즉 『東方迂迴戰略』은 毛澤東의 『農村으로부터 都市를 包圍』한다는 戰略思想에 寄與했다고 볼 수 있다.

四. 코민테른의 戰略과 戰術

레닌은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따라 “소련의 長期間에 걸쳐 帝國主義 여러 나라와 共存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勝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蘇聯과 부르조아 諸國間의 일련의 격렬한 충돌은 불가피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革命은 外國에서의 革命에 의한 支援없이는 成功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外國에서의 革命運動에 큰 期待를 걸고 있었다. 실제상 제 1차 世界大戰의 종말을 계기로 각국에 가시온 빈곤과 희생은 革命의 불꽃을 형기게 만들었다. 핀란드, 헝거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 共産黨이 조직되었고, 핀란드와 헝거리에서는 한 때 소비에트 政權이 수립된 바 있고, 독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기도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대파업과 暴動이 일어났다. 소 유럽에서 革命이 폭발할 것을 期待한 레닌과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國際勞動階級の 革命的 意慾을 集中하고 國際的 革命을 促進하기 위하여 1919年 初 「코민테른 창립 격문」을 發表하고, 3월에 모스크바에서 그 첫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는 30 國國으로부터 51명의 共産主義者들이 참석하여 第3인터내셔널인 「共産主義者 인터내셔널」(Comintern : The Communist International : The 3rd International)의 창립을 결정하고, 現存하는 危機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며, 民族國家는 너무도 縮소하여 生産力의 發展을 許容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어려 나라 勞働者들의 相互援助를 現實化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프롤타리아의 行動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프롤레타리아가 코민테른에 融合해야 한다는 基本理念을 採択하였다.

코민테른은 러시아 革命의 成敗를 가름하게 될 世界革命을 조직하고 또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組織되었다. 第1, 第2 인터내셔널에서 처럼 理論的으로 논란할 여가가 없는 급박한 情勢下에, 코민테른은 世界革命을 위한 總司令部인 戰術的 組織체로서 출발하였다. 第1, 第2 인터내셔널과는 달리 中央集權主義的으로 革命과 監督 등 강력한 權力을 行使할 수 있는 執行委員會가 組織되었다. 組織의 共產主義 組織체는 一國一黨主義로서 반드시 코민테른 코민테른 傘下의 아무아무 나라 共產黨으로 불리우게 되고, 코민테른의 支部로 存立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革命의 戰略과 戰術은 코민테른에 의하여 指令되고 規制되도록 하였다. 일체의 社會改良的 愛國主義나 中道主義가 규탄되고, 코민테른에서 除外되었다. 또한 코민테른은 물론이고, 그 이하의 「支部」로 되어 있는 각국 共產黨은 반드시 이른바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原則으로 運用되도록 規制하였다.

코민테른은 共產黨의 휘할 戰略과 戰術들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 첫째, 共產主義의 宣傳과 煽動을 繼續 꾸준히 展開해 나갈 것.
- 둘째, 階級鬭爭은 合法 및 非合法的인 工作과 병행할 것.
- 셋째, 軍隊 안에서 체계성 있고 중요한 宣傳 및 工作活動을 強化할 것.

네째.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體系性 있고 繼續的인 宣傳活動을 통해 勞農同盟을 強化할 것.

다섯째. 勞動組合에 파고 들어가 共產黨의 細胞를 組織하고, 共產黨 路線에 부합 되도록 勞動組合의 支持를 爭取하여 이를 掌握할 것.

여섯째. 共產黨 안에 잠식해 들어오는 쁘띠·부르조아 (Petit bourgeois) 적인 毒素을 제거하기 위하여 肅清工作을 履行할 것.

일곱째. 各國의 共產黨은 러시아 10月革命의 유형을 본받아, 大戰後의 혼란기를 利用하여 都市 폭동으로 革命을 수행할 것.

이러한 戰術에 立脚하여 유럽, 특히 東歐 유럽의 革命促進을 서술했으나, 레닌의 期待와는 달리 西歐 資本主義諸國은 戰後의 혼란을 克服하고 安定期에 접어 들었던 것이다.

코민테른은 創設과 함께 後進 諸國에서 共產主義 運動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20年 7月의 第2次 會議에서는 「民族 및 植民地問題에 관한 提제」를 採択하였고, 1922年 11月의 第4次 會議에서는 「東洋問題에 관한 一般的 提제」를 採択하였다. 첫 提제에서 레닌은 (“植民地에서 獲得한 超過利潤이 現代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資産의 主要源泉이다. 現代 資本主義가 이 超過利潤의 源泉을 상실하지 않는 한, 유럽 勞動階級이 資本主義 體制를 타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 이러한 유럽 帝國主義를 타도하기 위하여는 먼저 東方에 있는 이들의 經濟 要素를 분해하기 위한 植民地 解放運動을 적극 支援하고 促進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만 유럽의 資本

主義 體制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東方 迂廻戰略」에 따라 코민테른은 極東支部를 設置하고, 아시아의 여러 植民地 및 後進 諸國에서의 共產黨 組織을 支출했다. 이리하여 1920년에는 印度와 인도네시아에, 1921년에는 中國에, 1922년에는 日本에, 1925년에는 韓國, 1928년에는 필리핀, 1930년에는 인도차이나에, 1931년에는 말라야에 각각 共產黨이 創設되었다.

레닌은 後進 地域의 民族自決 運動이 反帝鬪爭→民族解放→階級革命의 方向으로 進展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後進 地域의 民族 自決運動을 代弁하는 民族 부르주아지 (national bourgeoisie)와의 提携的 提携를 重要視 하였다.

그들의 自決 運動을 支援하므로써 「解放者」로서의 名分을 확보하는 同時에 後進 地域에서 양양되는 民族解放의 기운과 資本主義 帝國 內의 프롤레타리아트의 鬪爭을 結合시키므로써 世界革命을 일한 國際 共產主義 運動을 成功的으로 領導할 수 있을 것이고, 장차는 民族 解放을 社會主義 革命으로 誘導할 수 있으리라고 判斷한 것이다. 1920年代 中半期에 아시아의 많은 地域에서 共產黨이 創設되고, 民族主義와 提携하여 일종의 「반제 공동 진전」을 전개한 이면에는 이러한 코민테른의 전략이 개재된다.

蘇聯이 世界革命의 中心이 되어 모든 革命勢力을 통합하고 領導해야 하므로, 國際共產主義는 無條件 蘇聯에 복종하고, 蘇聯을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되며, 世界 社會主義 革命의 窮極的 과제는 모든 民族을 蘇聯 中心의 單一的 經濟體制로 統合하는데 있다는 것이

래년의 持論이고, 蘇聯의 自己 中心主義(egocentrism)였다.

社會主義 革命의 모든 段階에서 反帝鬪爭을 포방하면서 부르조아
지의 提携하는 戰略과 戰術을 「위로부터의 共同戰線」(United
front from above) 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1921年 第3次 코민
테른(Comintern)大會에서 採択되어 1928年째 까지 持續되었다.

이러한 코민테른을 스탈린은 1943年 5月 21일 돌연 解体시
켰다. 解散시킨 公式的인 理由는 各國에 共產主義 運動을 獨自的
으로 指導할 수 있는 有能한 指導者들이 育成했으며, 그리고 이들
各國 共產黨을 모스크바가 統一的으로 指導하고 있다는 自由世界의
印象과 非難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등 몇가지를 들었으나,

實質的으로는 1939 ~ 1941年間 蘇聯 共產黨과 獨逸 나치스 사이
의 一般的인 提携에 의한 各國 共產黨들로 부터의 蘇聯 共產黨에
대한 不信과 특히 모스크바의 指令으로 움직이는 自國內 共產黨의
破壞的인 活動을 기피하는 點, 英 등 聯合國으로부터 보다 많은
援助와 協調를 받기 위한 術策으로서 解散시킨 것이다.

끝으로 코민테른의 戰略戰術中 注目할 點은 革命을 여러가지 型
으로 分類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先進資本主義 國家에 該當하는 純粹한 프롤레타리아革命

둘째,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등 資本主義 中位國에 該當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으로 發展할 부르조아民主革命

셋째, 中國, 印度等 植民, 半植民地에 該當하는 國家에서의 植民地革命

마지막으로, 아프리카等地에서와 같이 落後된 나라와 完全 壓迫된 나라에서의 民族解放鬭爭型的 革命 等으로 分類하고 있다.

5. 東歐의 共產化 戰略

제 2 차 세계대전에서의 勝利는 소련으로 하여금 「資本主義의 包圍」라는 不安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好機를 마련해 주었다. 1917 년, 10 月 革命에 성공한 볼셰비키 共產黨은 소련이 자본주의 陣營에 포위되어 있는 이상, 外部로부터의 侵入과 内部로부터의 反革命 위협에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믿고,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 1 차 세계대전 직후의 격동이 가라 앉기 시작하자, 世界革命은 그 退潮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世界 革命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소련은, 一國社會主義를 提議하고, 急進的인 經濟建設과 軍事力 增強에 全力을 다하는 한편, 국제 共產주의 운동의 育성을 肥하여 왔던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段階에, 유럽의 광대한 지역에 진출한 소련군은 終戰과 더불어 그의 強大한 軍事力을 배경으로 하여 이들 地域을 共產化하기 위한 온갖 勞力을 경주하였다. 소련은 戰後 急速히 平和狀態로 復歸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제국의 戰後 政策의 空白내지는 混亂狀態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東유럽 8 개국과 滿洲, 北緯 등의 占領 地域에서 軍事力을 배경으로 民族主義 세력을 제거하고 共產政權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東유럽의 赤化過程은 하나의 특이한 共產化 類型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주창한 「社會革命」도 아니고, 레닌이 실현한 「政治革命」도 아니다. 毛沢東이 실현한 革命戰爭 유형도 물론 아니다. 그것은 소련이 占

領 또는 解放한 地域에서 占領軍의 軍事實을 배경으로 하여 조작해 낸 「革命」이요, 強要한 共產化인 것이다. 소련의 敵對國이던 獨逸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및 헝가리, 그리고 獨逸의 被占領國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및 알바니아 등 東유럽의 8개국과 日本의 植民地였던 韓國의 38선 이북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이들 여러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反 러시아 感情이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를 例外로 한다면 공산당의 세력이 극히 미약했으며, 알타 (Yalta) 會談에서 소련이 이들 여러나라의 自決權을 公言한바있고, 또한 西유럽의 赤化를 위해서도 소련은 강경한 赤化政策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점진적인 赤化政策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3 단계를 밟았다.

제 1 단계에서는 이른바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열세한 現지 공산당이 소련 占領軍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강대한 民族主義 諸政黨과 더불어 「人民戰線」이니 「民族統一戰線」이니 「民主戰線」이니 하는 동등의 이름을 가진 聯合戰線을 형성하고, 聯合政府를 세워 共同計劃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공산당은 그 세력을 날로 증대시키는 한편, 강대한 民族主義 諸政黨에 침투하여 內部的 分裂과 弱化를 기도한다. 또한 소련 軍政當局은 광공연하게 敵對的인 各나 政黨을 事前에 除去해 버린다.

제 2 단계는 이른바 「人民 民主主義革命」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段階에 이르면 有力한 非공산주의적 指導者들을 하나씩 除去하고, 民族主義 政黨들을 無力한 各獨자시 政黨 내지는 불려리 政黨으로 變質시켜, 名目上으로만 議會民主主義를 유지한다. 모든 要職

은 공산당의 위장 政黨에서 장악하고 外面上으로만 위장된 假面의 聯立政府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제 3 단계는 이른바 「社會主義革命」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假面을 벗어버린 事實上의 一黨獨裁 단계이다. 聯合戰線 산하의 一部 政黨들은 그 속에 침투한 공산당 프락치 (Francia) 들에 의해, 공산당과 合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聯合되어 나타난 새로운 黨은 통상 「勞動黨」이나 「勤勞者黨」이나 하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그 本質을 보호하게 한다. 이른바 「人民民主主義」라는 이름 아래 反對黨을 帝國主義者들의 앞잡이로 몰아 말살해 버리고, 한두개의 장식용 둘러러 政黨의 看板만 남겨 둔 채 거의 완전한 공산당의 一黨獨裁가 실현되고, 완전한 共產化가 달성된다. 中共에서는 1957년의 惡名높은 「百花齊放 百家爭鳴」후의 反 右派鬭爭을 통해, 1958년 5월의 「社會主義 總路綫」과 「大躍進 運動」의 展開로서 제 3 단계의 革命이 완수되었다.

3 단계의 漸進主義的 赤化過程은 各國의 具體的 境況에 따라 그 速度가 각기 다르다.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와 같은 被占領國에서는 소련軍이 占領한 數個月 이내에 이미 제 2 단계로 移行하였다. 헝가리는 이 두 나라보다 1년이 더 걸려서야 제 2 단계로 移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제 1 단계를 거의 밟지 않고 곧 제 2 단계로 이행했다. 소련軍의 進駐와 더불어 세워진 루블린 委員會 (Lublin Committee)는 1944년 12월 말에 臨時政府로 改造된 것이다. 여기에는 소련軍의 로코슈스키 (Konstantin K. Rokossovsky, 1896~) 將軍이 直接 國防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는 체코 슬로바키아는 최초의 3년 동안, 民主主義的 自由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聯立 政府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이 政府가 마셜計劃 (Marshall Plan, 1947.6.5 発表) 에 의한 美國의 원조를 받아들이기로 決定하자, 소련은 1948년 2월 쿠. 데타로 共產化를 強行하고 兩黨 制 3단계로 移行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終戰과 더불어 이미 1945년에 一黨 獨裁의 制 3단계로 移行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티토 (Tito; 本名 Josip Broz, 1892~)가 지도한 農山 빨치산에 의해 國土의 大部分 解放되었고, 소련군이 이 나라의 解放을 위해 直接 기여한 것이라곤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군은 이미 1945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철수하여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東유럽 諸국은 1947년 말 내지는 1949년 초까지에 모두 다 制 3단계로 移行 하였다.

北韓에서 소련 占領軍은 民族主義者들이 主導한 各道別 <전국 준비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여 共產주의자들을 참여시켜, 로마네크 政治司令部的 통제하에 聯立政府 형태의 「政治委員會」(곧 人民委員會라 改稱했다)를 유지했다. 結社가 허가된 10월 중순 이후부터 共產黨, 朝鮮民主黨, 靑友黨, 新民黨 등이 출현했으나, 社會民主主義 政黨은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政黨속에는 純足 初期부터 共產黨 프락치들이 침투해 있었고, 純足하여 얼마되지 않아 反共的 民族主義者들은 거의 모두 除去되어 버렸다.

無力화된 장식용 政黨들을 둘러리로 세우고 드디어 1946년 2월에는 이른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함으로써 制 2단계로 移行하게 된다.

17개의 자리직중 13개의 要職은 모두 다 共産黨이 차지한 假面의 聯立政府인 것이다. 또한 열세한 공산당은 1946년 8월말, 가장 방대한 政黨중 하나였던 新民黨을 흡수統合하여 「勞動黨」으로 充足하였는데, 아직도 表面上 聯立政府로 위장하기 위하여 2개의 장식용 들러리 政黨과 기타 越北한 1人 1黨의 眷戚만 가진 사이비 政黨들을 이에 참여시켰다. 그 후 6.25 동란을 통하여 들러리 政黨들을 더욱 無力化 시키더니, 1956년 8월 이른바 「反黨宗派事件」(延安派事件) 이후 恐怖의 숙청사업인 「中央黨 集中指導制」를 통하여 1958년 8월 말의 소위 「社會主義 經理形態」의 完成과 더불어 形式的으로 내세우던 들러리 政黨마저 扶殺하고, 名實相符한 勞動黨 一黨獨裁體制의 確立, 즉 제3 단계인 社會主義 革命을 완수했던 것이다.

소련 占領軍의 軍事力을 배경으로 하여 亦化한 衛星國의 共産化過程은 마르크스가 말한바 資本主義의 몰락 뒤에 이루어진것도 아니요, 볼셰비키 革命의 배경이 되었던 資本主義의 초기 단계나 사회적 混亂에 의한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封建社會를 무너뜨리고 資本主義 社會의 산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르조아民主革命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어떻게 合理化할 것인가? 소련 공산당은 「人民民主主義」(People's Democracy)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고, 中共의 毛澤東은 이것을 「新民主主義」(Neo-democracy)로 규정하였다.

資本主義 단계를 거치지 않고 共産化한 이들 諸國의 社會發展上의 단계는 資本主義的 要素를 포함하였지만, 社會主義 建設을 指同한다

東유럽에 이른바 人民民主主義國家를 세우는 소련은, 이를 衛
 衛國家들과 自由世界에 대하여 모스크바 路線을 알리고, 衛衛國들을
 모스크바 政黨의 道具로 사용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코민포름 (Cominform ; The Information

政)이라 하는 것이다.

한 이러한 過渡的 政權 形態를 「人民 民主主義政權 (人民 民主專
 制)」이라 하며, 이러한 過渡期을 「人民 民主主義社會」라 하고, 또
 이 階級을 利用하기 위하여 聯合戰線 (人民戰線)이나 聯立政府의 成立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小市民層이나 資本家
 階級을 活用하여 파탄을 막고 經濟建設의 基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다. 小市民層과 一部 資本家 階級을 收買하고 이용해서, 資本가
 階級 新經濟政策 (NEP) 時代의 經濟를 살리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
 민 經濟 파탄을 극복하기 위하여 數年間 資本主義 體制로 후퇴했
 으로는 소련이 10月革命 以後 戰時 封建主義時代에 걸었던 쓰라
 麗主義 人間型으로 만들어서 나온 것이다. 또한 經濟的
 的 反共的인 國民을 收買하고 時間을 얻어 人間 改造를 통해 共
 産主義를 實現하는 政治的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多數
 獨裁와는 달리, 前述한바 人民의 범주의 속하는 모든 사람을 사이
 主義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만 民主主義가 收買된다는 프롤레타리아
 는 이른바 「良心的인 民族資本家」도 포함된다. 따라서 人民民主
 主義, 小市民 (기술자, 인텔리, 商人等) 階級과 農山 階級에 對하
 이다. 여기서 人民이라는 범주 속에는 노동자와 농민 階級뿐만
 不是 過渡期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人民民主主義」라 부르게 된 것

Bureau of the Communist Parties) 으로 알려진 「情報局」을 창설하였다. 1943년 5월, 코민테른이 해체된 이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소련 공산당이 直接 관장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占領軍과 國家保安部 (KGB), 그리고 經濟的 手段을 통해 東유럽 衛星國家들을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加盟黨들을 구속하지 않는 單純한 국제적 情報교환의 매개체가 必要하다는 提議은 드디어 1947년 9월, 소련,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탈리아 및 프랑스 공산당 代表들의 참가리에 코민포름의 創設을 가져왔다. 코민포름은 情報 交換을 組織하는 任務와, 必要한 경우에는 相互 同意에 입각한 공산당의 行動調整을 책임지며 「항구한 平和를 위하여, 人民 民主主義를 위하여」 (For the lasting peace, for the peoples democracy) 라는 新문을 발행하도록 合意를 보았다.

그러나 코민포름은 各國 公산당들을 縱的 및 組織的으로 結束시킨 것이 아니라, 橫的·水平的으로 相互間을 연결시키는데 그쳤으며 어떠한 規約文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任務만 制限되어 있었다. 실제상 코민포름은 소련 公산당의 利用物에 불과하였다.

1948년 유고슬라비아 公산당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서 이탈 民族主義的 路線으로 轉換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코민포름에서 除去됨으로써 그 一角이 누너지기 시작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코민포름과 스탈린에게 反旗를 들고 独自の인 路線을 지향하게 된 理由는, 소련이 目刀으로 獨立을 고수한 유고슬라비아를 다른 東유럽 여러 나라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政治的으로 壓축화 정책을 쓸

분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가혹하게 착취했으며 軍事的으로 억압 監視한데 대한 民族主義的 主体意識의 반발에서 였다.

1953년 스탈린의 死亡後, 소련의 새 지도자들은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主權과 內政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는 코민포름의 解体를 요구했으므로, 드디어 1956년 4월 코민포름은 그 사명을 관수하였다는 성명과 함께 解体하였다.

6. 스탈린의 戰略, 戰術과, 아세아 共産主義運動의 戰略 戰術

제 2 차 世界大戰의 종말과 더불어 東유럽의 8 개국을 共産化한 스탈린은, 이에 만족치 않고 世界 亦化를 위한 一大攻勢를 展開하였다. 西유럽諸國의 共産당을 지원 하는 한편, 中東 및 아시아 여러 나라의 民族主義運動에 使乘하여 이들 여러 나라를 共産化하고자, 이른바 <스탈린의 戰後攻勢>를 展開하였는데, 이것이 表面上으로는 東西間의 冷戰 (cold war) 으로 나타난 것이다.

資本主義의 포위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련의 周辺地域에 가능한 한 많은 衛星國을 세우려는 스탈린의 戰後 赤化攻勢의 理論的 基礎가 된 것은 「兩大牌宮論」이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1917년 러시아의 10月 社會主義革命 이후, 세계는 쇠퇴 一路에 선 資本主義 陣營과 새로운 成長 一路를 달리고 있는 社會주의 陣營으로 對立 分裂되어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法則에 따라 兩 陣營間의 矛盾 對立투쟁은 불가피하다. 이 兩者間의 對立鬭爭은 歷史發展의 必然的 法則에 따라 이미 노후해 버린 자본주의의 전반적 危機를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以後 資本主義의 전반적 危機의 第2段階가 展開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징후는 다음과 같다. ①革命의 물결이 들이닥쳐 이미 東유럽의 8 개국과 아시아의 3 개국 등이 資本主義 體制로부터 이탈하여 資本主義 陣營을 急格히 弱化시킨 반면, 社會주의 陣營은 한 나라 뿐이었던 것이 12 개국으로 증강되었다.

②民族解放運動이 高揚되어 帝國主義의 植民地 支配가 괴멸의 過程을 밟게 되어, 社會主義 陣營의 立場을 날로 強化시키고 있다.

③資本主義 諸國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의 不均等性이 一層 激化되어 資本主義 陣營 內部的 모순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④獨占資本家와 프롤레타리아 및 全勤勞者間的 모순이 激化되어 階級鬭爭을 強化하고, 共産黨의 影響力을 증대시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징후들은 資本主義 諸國이 몰락 直前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沒落을 促進하기 위하여 資本主義 陣營 內의 모순을 가일층 激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資本主義 陣營 內의 모순, 즉 ①資本家와 노동자간의 모순, ②帝國主義宗主國과 이들 植民地 및 宗主國 間的 모순, ③帝國主義 列強 相互間的 모순을 激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세계 各國의 프롤레타리아 革命과 植民地 여러 나라의 民族解放運動 및 帝國主義 諸國 內에서의 共産黨의 活動을 取大限으로 利用하여, 可能的한 많은 나라에 소비에트 國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努力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을 基礎로 하여 소련은 東유럽 諸國을 赤化하는 한편 獨逸, 이탈리아, 프랑스 등 戰後의 混亂이 격심한 西유럽 諸國의 共産黨을 積極 支援하였다. 그 結果 獨逸 共産黨은 戰後 國會 議席의 68%를 차지함에 이르렀으며, 프랑스에서는 90만의 黨원을 가진 共産黨이 議席의 26%를 차지하고, 1947년 말에는

政治的 과업이 최고조에 도달한 바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도 230 만의 당원을 가진 共産黨이 聯立政府에 參加하는데 成功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共産黨의 猛威는 1947 年 中旬부터 始作된 美國의 馬沙經濟援助計劃 (1948 ~ 52 年間 18 個國에 125 億 달러를 援助하여 受援國들의 工業을 戰前 水準의 41 %를 증가하게 했다) 에 의하여 經濟再建이 추진됨과 아울러 漸次 시들어 갔고, 西유럽은 安定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스탈린은 中東地域에 화살을 돌려, 그리스와 터키 등에서 共産계렬라戰을 시도하였다. 그리스에서는 공산당과 게릴라가 상당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으나, 이것도 1947 年 3 月의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에 의한 援助와 反共的 그리스 國民의 용감한 鬪爭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各國의 共産主義 運動은, 第2次 世界大戰 期間中 抗日運動을 통해 共産黨이 자기 勢力을 擴大 強化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중국 共産黨은 抗日 유격전을 통해서 막강한 努力으로 成長하였다.

필리핀 共産黨도 후크 (Huk bong Bayan Laban sa Hapon) 로 불리워진 抗日 人民軍에 의한 게릴라戰을 展開하여, 政治的·軍事的 力量을 鞏固하게 구축하였다. 말라야 共産黨은 2次 大戰 期間中 英國軍의 支接을 맡아가며 抗日 게릴라戰을 展開하였고, 인도차이나에서도 戰爭 末期에 이르러 「越南 獨立同盟」이 조직한 게릴라戰이 急速히 擴大되어 갔다. 이들 여러나라에서의 共産계렬라戰은 戰後에 植民地 統治를 반대하는 民族主義運動에 편승하여 다시 등장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情勢를 배경으로 하여 1947년 9월, 코민포를 창설회의에서 소련의 國際共產主義運動 部門의 責任자인 유다노프(A.A.Zhdanov)는 「植民地 統治의 危機를 잠재화」시킬 것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아시아의 民族主義運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경책을 제시하고, 그 이듬해 2월에 인도의 켈카타(Calcutta)에서 이른바 東南亞 諸國 青年代表者大會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소련은 武装闘争을 통해 國際共產主義의 새로운 목적을 아시아 地域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廢絶할 것을 指示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 이후 6개월 이내에 버마, 말라야 인도네시아, 필리핀, 兩韓 등지에서 케릴라戰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革命戰爭이 개시되었다. 中國과 인도차이나에서의 戰爭은 더욱 激化되어 갔다. 또한 聯合 闘争方式을 위주로 한 日本 및 인도의 共產黨도 한때 都市 暴動들을 사용하여 共產主義 運動을 支援하고 나섰다.

中國에서는 소련軍이 占領했던 滿洲를 근거지로 하여, 이미 1947년 7월 이래 全 中國領土를 장악하기 위한 中共軍의 總攻勢가 개시되어 兩滿洲 地域을 우선 석권하기 시작했으며, 1949년 가을에는 全中國 本土를 장악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버마 共產主義者들은 指導者와 이데올로기 問題로 「赤旗 共產黨」과 「白旗共產黨」으로 分裂되어 있었는데, 1947년 總選舉에 참여했으나 패배당한 白旗 共產黨은 1948년 4월부터 소련의 지원에 따라 新生政府(1948년 1월에 樹立)를 건국하기 위한 暴力闘争을 개시하였다. 처음에는 賃金引上을 위한 파업 등의 經濟闘争으로

로 막을 올렸으나, 이어서 테러 활동과 폭동이 뒤따랐다. 8월에는 政府軍 안에 침투한 「白色帶 人民義勇團」이라는 반란군을 위주로 게릴라戰을 개시하였다. 1949년에는 4,000余의 共產半島가 活動하고 있었으나, 完全 진압을 못한 채 1950년 5월에 일단 休戰이 成立되었다.

인도에서는 켈커타會議에 뒤이어 1948年 2월에 열린 인도 共產黨 第2次 大會에서 「暴力鬭爭으로 反政府 運動을 廢止」하기로 決定하고, 봄베이 (Bombay) 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반란적 성격을 띤 파업과 마드라스 (Madras) 와 西部 벵갈地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특히 인도에 統合된 하이드라바드地區에서 宗教的 不滿이 섞인 內亂이 일어나자, 共產黨은 이 사건을 최대한으로 利用하면서 新生 政府의 전복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인도 共產黨은 新生 政府를 지지하고 있는 國民의 마음을 끌을 수가 없었다. 그 理由中의 하나는 제2차 世界 大戰中 英國의 戰爭努力에 대한 贊·反問題에 기인하고 있다. 즉 國民會議派는 인도 國民의 同意없이 제멋대로 英國이 인도의 對 이탈리아 宣戰을 포고한데 忿怒하여 反贊소 運動에 가담하기를 거부했으나, 인도 共產黨은 英國의 戰爭努力을 지지하므로써 마치 소련의 허수아비라는 印象을 받게 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1948年 12月, 獨立을 爭取할 때까지 和蘭의 끈덕진 植民主義的 武力干涉을 받는 大混亂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勞動組合 勢力을 장악한 인도네시아 共產黨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反帝·反植民主義的, 暴力鬭爭을 展開하기 위하여 1948 년에 「民主主義 人民戰線」을 結成하고, 9월 부터는 소련에서 돌아 온 지도자 무소 (Musso) 의 지도하에 자바 (Java) 섬 마디움 (Madium) 地方에서 暴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暴動은 指導者가 사살됨으로써 그해 11月에 鎮壓되고 말았다.

말라야 共産黨은 戰後에 파업, 선전, 조직 活動에 열중해 왔으나 1948 년 봄부터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鬭爭方式을 버리고 全國的인 暴力 革命으로 그 轉換을 變경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중에 조직된 게릴라部隊가 「人民解放軍」이라 改稱하고 다시 정글 속에서 그 兵力을 再編하여 5,000 내지 6,000 의 세력을 確保하고, 6月에는 總攻勢를 取하기에 이르렀다. 殺人, 放火, 납치 등 테러 戰術의 사용은 순식간에 全國을 공포와 不安의 도가니로 돌아놓았다. 주로 華僑로 조직된 말라야 共産黨과 게릴라部隊는 정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 50 만의 中國人의 支援下에 그 세력을 擴張하여 갔다. 1950 년부터 本格化 한 英國軍과 말라야 軍警의 孤立化 作戰으로 1956 년에는 이미 대부분 섬멸되었으며, 결국 12年 卽인 1960 年에는 완전히 鎮壓되었다.

말라야 共産黨은 戰後의 混亂期와 新生 政府의 부패 무능을 利用하여 土地改革의 실시, 美軍의 철수, 美國人에게 부여된 經濟的 同等權의 폐지 등 人氣標語를 내걸고, 人民民主主義國家 建設을 목표로 1948 년부터 暴力鬭爭 단계에 突入하였다. 폭크團을 재조직하여 테러戰術과 게릴라戰을 통해 全國的인 위기 의식을 造成하였다

1950 년에 이르러서는 6 만의 게릴라 兵力으로써 軍事的 總攻勢

를 展開하여 全國의 많은 地域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막사이사이 (Magsaysay) 國防長官의 등장과 미국의 원조로 이들도 1954년에 진압되었다.

인도차이나에서는 1946년부터 시작된 抗仏 戰爭에서 인도차이나 共產黨이 聯合戰線으로서의 「越南 獨立同盟」을 강화하여 全體 국민들을 抗仏 戰爭에 총궐기시키는 한편, 프랑스軍의 一貫된 要塞戰術에 대하여 게릴라戰을 전개하여 드디어 1954년에는 越盟의 승리로 休戰을 成立시켰다.

南韓에서의 共產主義者들은 國內外 情勢에 힘입어, 1948년부터 게릴라戰을 위주로하는 暴力鬪爭단계로 전환하였다. 5·10 選舉를 전후한 각종 테러 및 破壞活動과 4월부터 開始된 제주도에서의 게릴라戰, 그리고 歸順地區에서의 軍隊叛亂 등은 10月경부터 太白山脈과 小白山脈 一帶에서의 게릴라戰으로 擴大되어 갔다. 그리고 9월에는 共產 게릴라들이 總攻勢를 시도했으나, 軍隊와 警察에 의해 討伐되고 말았다.

以上과 같은 소련의 戰後 스탈린 시대의 세계戰路를 대별하면 1945~47년, 1948~53년의 2 단계로 区分된다. 전단계에 있어서는 地域과 나라별로 일정하지는 않으나, 各 地域의 共產黨이 民族解放運動에 침투하여 反帝·反植民主義 運動을 전개하고, 農村의 欲求 不滿을 자극하여 토지 改革을 促進하는 한편, 政府 機構, 勞動組織, 政黨, 學生運動에 침투하여 社會主義의 組織 기반을 擴大하는 前述에 치중하였다.

후단계에 있어서는 1947년 9월에 設立된 코민포름이 共產主義

선동의 중심 機構였다. 주다노프가 共産黨과 民族 부르조아지와의 대립 및 분류에 着眼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말라야,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의 광범한 地域에 있어서의 共産主義의 武裝 봉기들 선동하였으나 거개의 반란이 진압되고 共産黨에 대한 일반의 不信만이 점점 더 해가자, 戰略 目標들 전환하여, 서방 諸國의 관심을 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키면서 동부 유럽권의 統攝과 소련 자체의 再建 등 태세 強化에 치중하는 方向으로 나갔던 것이다.

- 1945~46년 터키, 이란 등지에서 실패한 이후 1955년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中近東에서는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하였고, 1948년에는 이스라엘을 승인하여 아랍권과 서방 세계와의 反目을 조장시켰다. 그러한 政策은 후일 毛沢東의 解放戰爭 戰略에 對抗하기, 위하여 소련이 東兩亞 國際 政治에, 다시 復歸하기까지 큰 變化가 없었던 것이다.

七. 毛沢東의 革命戰爭 戰略, 戰術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은 일단의 職業的 혁명가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단기간에 결말이 났을 뿐만 아니라 鬧爭의 中心이 都市였음에 반하여, 中共의 경우는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두고 주로 農村 社會로 파고 들어간 社會主義 革命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前者의 경우에 勞農 대중, 특히 농촌 출신의 兵士들이 革命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受動的인 혁명 지지에 不適하였음에 반하여, 後者に 있어서는 농촌이 革命의 근거지가 되고, 農民 출신의 「紅軍」이 혁명의 主動力이었다는 점에 큰 差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世界革命으로 통하는 길은 西方보다도 東方으로!」 「와리 (Paris) 는 北平을 돌아서!」 라는 이른바 東方 迂迴戰略에 따라, 레닌은 後進의 殖民地 諸國의 「民族解放運動」을 적극 지원하고 民族王權運動에 使乘하여 共產化革命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殖民地 諸國에서 사용할 共產黨의 戰術을 제시하였다. 毛沢東은 레닌의 이러한 理論과 戰略 戰術을 半封建的·半殖民地的 後進國인 中國의 具體的 現實에 「創造的으로 적용」하여, 그의 이론 革命戰爭의 理論관 전라 體系를 體系化 하였다. 21)

그의 革命戰爭論의 時代的 背景은 마르크스~엔겔스의 社會革命論의 배경이 된 物質的 生産力이 최고도로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사회나, 레닌의 볼셰비키 革命의 배경이 된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한 後進的 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아직도 자본주의의 발달이 시작

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열강의 예측 상책하
 여 능역 있는 半封建的·半殖民地的 後進社會임을 그 특징으로 한
 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에서는 歷史 發展의 過程적 단계에 따라
 「부르조아 民族革命」 「民族解放運動」이 당면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부르조아 계급 및 民族主義 勢力과의 聯合
 假設을 결성하고, 民族主義運動에 領導하여 공산당의 세력을 扶植하
 고 확대 강화하므로써, 민족주의 운동과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效果
 를 擧げ하여야 한다는 假設의 成立 根據가 存在한다. 즉 공산당
 은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指導權을 장악하여 이 혁명을 「人民
 民主專政」을 거쳐 「社會主義革命」으로 終結시켜야 하며, 따라서
 우선 민족주의 운동으로 間接한 形態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國內外的인 모든 條件과 機會
 를 總動員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利用하는 戰略을 使用하여야 한다.
 또한 後進社會의 政治·經濟·社會的 面에 最大限으로 活
 用하여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지 않으면 안된다. 大衆의 力量을
 總動員하여 現存 政權을 전복하고 政治 權力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現存 政權의 強力한 軍事力이나 帝國主義 勢力의
 壓迫이 存在하는 이상, 이러한 革命目標은 實事로 達成될 수 없다.
 더구나 아직도 勢力의 形成을 모지 못한 勞動者 階級에 의한 都
 市暴動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다. 中國 共產黨은 코민테른에
 의뢰 1921年7月1日 節克된 이래, 분계비키 革命階級에 立脚하
 여 1920年代 末과 1930年代 初에 都市 暴動으로 政權을 탈취하

려는 努力을 끈덕지게 繼續하였으나, 모두 다 失敗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經驗을 參考로 하여 毛沢東은 中國의 具體的 現狀을 土台로 하여 레닌과는 正反對로 農民을 革命의 主体勢力으로 하고, 農村地域에 革命 根拠地를 建設하여, 여기서 武裝部隊를 組織하고 게릴라戰을 展開하면서 持久戰을 通해 그 勢力을 擴大 強化하고, 나중에는 農村으로부터 都市로 包圍해 들어가는 戰術에 의한 革命 理論을 實際經驗을 通해 提示하고 또한 立証했다. (이런 戰術이 後日 中共이 發展시킨 <中間地帶論>의 原型 또는 國內版 中間地帶論이라고 볼 수 있다).

1927年10月 秋收 暴動에 失敗한 毛沢東은 1,000餘名の 武裝 農民들을 이살고 井崗山에 들어가, 여기에 根拠地를 두고 게릴라戰을 通해 꾸준히 그 勢力을 擴大하여 갔다. 1930년에는 일약 6萬名の 武裝部隊를 保有하게 되었고, 1931年11月에는 瑞金을 首都로 하여 이른바 「中華 소비에트共和國」의 樹立을 宣布하고 中國本土 總面積의 1/6과 人口 6,000萬名을 支配하게 되었다.

1930年10월부터 開始된 3年間に 4次에 걸친 蔣介石의 掃共戰을 이겨내면서 그 勢力을 繼續 擴大할 수 있었던 共產軍도 1933年10월에 開始된 第5次 掃共戰(兵力 100萬에 飛行機 100台 動員)에 쫓겨 1934年9월부터 1年間に 걸친 25,000里의 大敗走 行進을 하여, 30萬이던 大軍이 2萬 내지 3萬의 兵力으로 減少되어, 中國 北部의 陝西省 延安地區에 到着하게 된다. 여기서 共產軍은 다시 抗日 民族戰爭의 好機를 利用하여 1937年9月 抗日 民族統一戰線을 제기, 第2次 國共合作을 通해 「7分發展, 2分

応付, 1分 抗日」이라는 基本戰略 아래, 「第1段階는 国共合作으로
써 共産党的 生存과 發展을 꾀하고, 第2段階는 国民党과의 勢力均
衡을 達成하기 위하여 鬭爭하고, 第3段階에서는 国民党을 反擊하기
위해 華中 根據地를 建立한다는 段階的인 戰術의 使用으로, 다시
그 勢力을 擴大할 수 있는 突破口를 形成하였다. 中共의 「抗日
民族統一戰線」에는 日帝에 反抗하는 모든 階級, 즉 勞動者, 農民,
都市의 小市民 등이 망라되고, 抗日이라는 民族的 共感으로서 團結
을 強化할 수 있었다.

日本軍은 中國의 大都市와 交通의 要路만을 支配하였다. 즉 點
과 線만을 支配한 것이다. 兵力이 不足하여 廣大한 農村은 占領
할 수가 없어서 農村에 對한 日本軍의 支配力은 大端히 微弱하였
다. 日本軍이 內陸으로 進軍하고 中共軍이 敗退하고 있을 때, 紅
軍(八路軍과 新四軍)은 敵의 後方에서 游擊戰을 展開하여 廣大한
農村에 根據地를 設定하였다.

抗日 戰爭의 主力은 農民이 되고, 長期戰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財力과 物資도 農民이 提供하게 되었다. 農民에 依存하고, 農村
根據地를 建設하고, 農村의 힘으로 都市를 包圍하여, 마침내 都市를
奪取하는 것이 中共革命의 基本이었다.

抗日 根據地에서 中共은 「民主改革」을 實施하고 農民 大衆을
組織하여 「抗日 民主政權」을 樹立하였다. 1945년에는 그 勢力
이 人口 1億6千萬名에, 八路軍이 100萬名으로 불어났다.

毛次東은 22年이라는 長久한 「人民戰爭」의 體驗을 通하여 戰爭
万能의 狂想的 確信을 갖게 된 것 같다. 그가 “革命의 基本

任務와 最高 形態는 武力에 의한 政權의 奪取이며, 戰爭에 의한 問題의 解決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러한 革命原理는 보편적으로 正當하며, 中國이건 外國이건 다를 것이 없다.”고 斷定하고, “帝國主義는 종이 호랑이에 不過하다.”,

“政權은 銃뿌리에서 나온다.”고 豪言한 것은 너무나 有名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毛沢東은 “戰略적으로는 敵을 輕視하지, 戰術적으로는 敵을 重視하지 말 것이며, 각기 革命의 具體적인 實踐속에서 각자가 具體적인 國爭의 問題를 두고 具體적인 狀況을 研究하지 않으며, 慎重한 態度를 取하지 않고, 國爭의 技術을 追求하지 않으며, 또 適切한 國爭形態를 取하지 않는다면, 人民戰爭은 勝利할 수 없다”,²²⁾ 고 하였다.

더욱 重要的 것은 毛沢東이 中國 大陸에서 實踐한 人民 戰爭의 戰略과 戰術의 原理를 그대로 國際 政治에 對한 戰略과 戰術로서 適用하고 活用하려는 무서운 執念이다. 林彪가 代辯했듯이, 農村에 革命 根據地를 樹立하고 農村으로써 都市를 包圍한 것처럼, 아시아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등 「世界의 農村」으로서 美國과 西歐 社會, 즉 「世界의 都市」를 包圍하자는 것이 毛沢東의 世界 戰略 戰術의 基本原理가 되고 있다.²³⁾

中共이 1955년의 ~~莫斯科~~^{반공} 會議 以來로 아시아·아프리카의 後進地 域, 特히 中立·非同盟 諸國에 進出하여 도처에서 「人民解放戰爭」 方式의 소란을 策動한 것은, 「世界의 農村」으로 「世界의 都市」를 包圍하기 위한 毛沢東 戰略의 實踐에 不過한 것이었다. 「世

界의 農村」에 거점을 設定하기 위하여 各 地域의 共產黨 등 勞
働 勞力은 勿論이고 土着 부르조아지와도 널리 提携한 것은 中國
革命의 初期 段階에 있어서 「新民主主義論」이나, 「聯立政府論」이
니 하여, 勞働 大衆과 더불어 都市의 民族 부르조아지를 널리 包
括한 手法과 다른 것이 없다.

八. 現代共產主義戰略의 潮流

오늘날,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에 관한 共產主義者들의 戰略 戰術은 크게 세 가지 潮流로 分類될 수 있다. 24) 그것은 複雜多樣한 마르크스~엔겔스의 理論 속에 이미 그러한 可能性을 包含하고 있었고, 또 오래 前부터 마르크스 主義者들에 의하여 爭論되어 온 問題들을 現代의 情勢에 副應하도록 다시 登場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엔겔스의 理論 속에 內包되어 있는 少數者革命, 多數者革命 그리고 漸進的 改良 등의 種類이 第1次 世界大戰 後의 時期에는 레닌~카우츠키(Karl Kautsky, 1854 ~ 1938), 그리고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 ~ 1932) 등에 의하여 代表되었고, 오늘날에는 毛沢東, 흐르시초프와 그 이후의 소련 指導者들, 그리고 티토(Tito) 등에 의하여 解決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共產化)에 관한 共產主義者들의 論爭은 세 가지 問題에 集中되어 있다.

첫째, 非共產國에 있어서, 共產黨이 取하여야 할 戰略 戰術은 무엇인가?

둘째, 共產諸國에 있어서, 社會主義 建設을 위해 取하여야 할 戰略 戰術은 무엇인가?

셋째, 이른바 帝國主義勢力에 對항 할 共產陣營의 外交的 戰略 戰術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問題에 관한 유고슬라비아, 소련, 中共의 主張은 각각 相異하며, 이들 세 나라에 의해 代表되는 潮流가 오늘 共產陣營의 複雜한 戰略 戰術의 總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 體制와 共產主義 體制의 競爭에 의한 共產體制의 勝利를 主張하는, 이른바 「競爭하는 여러 體制의 類型」 (The pattern of competing systems)에 土台를 둔 漸進主義的 戰略 戰術을 제창하고 있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永恆革命의 類型」 (the pattern of permanent revolution)에 土台를 둔 正面對決의 戰略 戰術을 提唱하고 있다.

소련 共產主義者들은 이 두 가지의 極端적인 立場의 中間에서 하나의 새로운 立場을 發展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52)

非共產國에 있어서 共產黨이 欲하여야 할 戰略 戰術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同盟은 1958年에 採択한 綱領에서 修正主義的 立場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즉 帝國主義 諸國에 있어서 資本主義經濟는 이미 社會主義的 變革을 이루고 있는 중이며, 植民地 및 植民地였던 後進 諸國에 있어서는 民族解放運動이 社會主義 方向으로 進行中에 있다고 判斷하고,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에 대한 展望이 過去의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主張하였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修正主義的 綱領에 強力히 反對하고 帝國主義 諸國에서나 後進 諸國에서나를 莫論하고 레닌主義的 正統派의 戰略 戰術을 取할 것을 主張하였다. 소련 共產主義者들은 1956年 第20次 共產黨 大會에서, 흐루시초프가 最初로 宣稱한 立場, 즉 議會를 통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도 可能성이

있다고 사인하고, 레닌主義的 少数者 革命論을 排除한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資本主義 經濟가 社會主義的 變革을 하고 있다는 修正主義的 命題를 받아들이는 것을 拒否하였다. 소련 共產主義들은 「增大하는 窮乏 (the pattern of increasing misery) 에 의한 多數者 革命」의 戰略 戰術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程度는 不明瞭한 채 남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共에 의하여 代表되는 極左的 立場에 의하면 非共產 諸國에 있어서의 主要한 鬭爭形態는 革命戰爭이요, 政權은 銃口로부터 생겨나며, 世界는 오로지 武器에 의해서만 改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 유고슬라비아에 의하여 代表되는 右傾的 立場에 의하면 戰爭이나 暴力鬭爭이 없이도, 經濟 競争을 通해, 그리고 民族解放運動의 成長을 通해 必然的으로 共產化가 實現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兩 極端의 中間에 위치한 소련의 中道主義的 立場에 의하면, 議會鬭爭을 通한 多數者의 革命에 의하여 政權의 奪取가 可能하며, 또한 後進諸國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運動을 위주로 하는 革命戰爭의 경로 排除한 것은 아니다. 各國은 처해 있는 環境과 情勢에 따라 伸縮性 있고 融通性있는 革命의 길을 걸되, 冒險主義的 立場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루시초프가 1956年2月, 소련 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제기한 「平和共存論」 (Peaceful Coexistence) 은 全世界의 共產主義 運動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 從前의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의하면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는 兩立할 수 없으며, 戰術的인 必要에서 두

개의 體制가 일시 共存한다 치드라도, 資本主義는 弱極的으로는 共產主義에 의하여 征服당할 것이고, 帝國主義와 資本主義를 征服하기 위한 戰爭은 不可避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는 그의 「平和 共存論」에서, “平和共存이 레닌 이래의 소련의 對外 戰略의 方向이며, 그것은 戰術的인 運動이 아니라, 소련 對外 政策의 基本原則”이라고 主張하였다. 또 “소련에는 戰爭을 必要로 하는 要因이 없으므로, 資本主義 國家의 內部問題에 介入할 必要가 없을뿐더러, 社會主義의 生産양식이 資本主義의 그것보다 越等한 結果, 資本主義 國家의 內部에 마르크스~레닌主義에 호응하는 勢力이 成長하여 戰爭을 배격하게되므로 戰爭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戰爭 不可避論>은 帝國主義가 거의 全世界를 支配하고 있었고, 戰爭을 배격하는 社會主義의 勢力이 微弱하여 帝國主義 國家에게 戰爭勳乘를 強要할 만한 힘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이며, 社會主義 勢力이 急激히 成長하여 資本主義 國家안에서 수백만의 大衆이 戰爭을 견제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戰爭은 決코 不可避한 것이 아니다.”라고 論하였다. 그는 戰爭의 要因을 主로 經濟面에서 觀察하였으며, “社會主義는 資本主義 體制처럼 戰爭의 不可避한 要因을 內包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그는 不可避한 것은 全世界의 社會主義化이며, 社會主義에 到達하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어서, 나라에 따라서는 暴力革命이 必要한 경우도 있지만, 暴力革命이 社會主義化의 唯一한 길은 아니

다. "議會制度下에서도 社會主義化는 可能하다." 고 主張하였다. 호루시초프에 의하면, 資本主義 國家안에서 成長한 社會主義的 平和 愛好勢力이 帝國主義의 戰爭 도발을 견제하므로써 資本主義體制의 戰爭 不可避 要因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階級鬭爭의 새로운 形態이며, 그러한 勢力이 議會制度下에서 리더십을 掌握함으로써 平和共存은 維持되고 全世界의 社會主義化는 進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世界革命은 "社會主義 陣營에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움직이고 있는 資本主義 對 社會主義의 勢力 關係의 變動으로써 達成될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結論이다.

호루시초프의 「平和 共存論」은 傳統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에서 共產主義 路線의 離脫이며, 革命의 逆襲라고 볼 수 있음 程度로 大胆한 戰略의 轉換이었다.

이러한 帝國主義 勢力에 對한 共產陣營의 外交的 軍事的 戰略 戰術에 있어서의 核心的 問題는 核戰爭의 威脅과 關連된 問題이다. 世界共產化를 위하여 必要하다면 軍事的 手段에 의하여서라도, 資本主義 諸國에 革命을 擴大시킬 것인가, 아니면 1924年 스탈린이 採擇한 一國社會主義論과 같이 革命의 수출을 中斷하고 平和共存을 實現 것인가 하는 問題인 것이다.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이 問題에 關하여, 오늘날 世界는 共產主義 勢力이 資本主義 勢力에 比해 強大해졌다는 理論에 土臺를 두고, 民族解放 革命戰爭을 積極支援해야 한다고 主張하며, 또한 第3次 世界大戰을 두려워 할 必要는 없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歡迎한다는 戰爭 不可避論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中共이 1950

면에도 상당한 변화가 엿보였다. 美國과의 勢力 均衡의 維持가
 었다. 「平和共存論」이 나온 이후로 소련 공산당의 戰略과 戰術
 는 現狀앞에서 共產主義의 神話는 虛構성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
 시키기 위한 政治的 手段으로 活用되었을 뿐이다. 國家 利益이라
 무시되고, 共產主義의 보편적 權威는 主로 소련의 國家利益을 充足
 이데올로기의 正統性도 소련의 規定的인 國家利益 앞에서는 尙상
 難하는 現狀에 屈服하여 해석되고, 通用되어 왔다.

이 마르크시즘은 레닌 이래로, 소련 共產黨의 支配者에 의하여 變
 化的인 變遷을 거침없이 오글에 이르렀다. 위의 說 論한 바와 같
 이, 하여간 소련의 共產主義는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를 通해서 歷
 史적으로 變遷을 經고 있다.

平和共存論」을 修正主義 (revisionism) 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정
 이 破弱한 中共을 비롯한 後進, 共產主義 諸國은 흐루시초프의
 變에 없었던 것인데, 아직도 革命이 進行中이고 모든 면에서 各單
 기 보다는 소련 自體의 生存 維持라는 現狀 問題에 對峙할 수
 의 무거운 威力을 知覺하게 된 흐루시초프로서는 희망한 이데올로
 論하고 있다. 美國과의 核武器 競争을 通해서 새삼스럽게 核武器
 그러나 소련 共產主義者들은 實際上 어떠한 核戰爭도 이를 두려
 解脫된다.

國內 實力培養으로 다음의 攻擊을 위한 準備을 하기 위한 것으로
 帝・反封建 獨立運動을 先동만 하면서 그 期間에 時間을 벌여 自
 는, 結局 <中間地帶論>에 立脚하여 未開發 國家들에 對하여 所謂 反
 年代 後半期 이후 美國과의 正面對決을 극력 회피하고 있는 理由

平和共存의 基本이 되리라는 見地에서 軍備競争, 특히 핵탄두와 로켓分野의 開發 및 蓄積에 힘을 기울인 結果 1957年 11月에는 스푸트니크 人工衛星의 發射에 成功하므로써 美國에 크나큰 衝擊을 주었는데, 그로써 美·소간 核武器 分野의 軍備 競争에 拍車가 가해졌다.

軍備 競争의 激化는 平和共存의 必要性을 더욱 切實하게 하였다. 軍備 競争에 熱을 올리면서도 소련은 全面的 核戰爭으로 擴大될 可能性을 內包한 問題를 두고는 美國과의 對決을 회피하는 등, 平和共存의 維持에 積極的이었다. 金門島 事變때의 消極的인 態度 (1958年), 쿠바에서의 미사일 擧収 (1962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部分的 核実験 停止條約의 調印 (1963年), 1970年 헬싱키에서의 美·소 戰略武器의 制限交渉, 核 擴散禁止 條約의 同時 批准, 소련과 西獨逸의 武力 不行便 宣言, 西獨-폴란드 修交條約 등이 平和 共存과 關聯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美國과의 核對決의 念願가 없는 地域的 분규에 있어서는 解放戰爭을 支援하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으며, 局地的 分규를 反帝 解放戰爭의 方向으로 誘導支援하므로써 共產圈 안에서의 權威를 維持하고, 美國의 勢力圈을 侵蝕하는 戰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폴란드·헝가리 事變에 대한 절의 強圧 (1956年), 수에즈 紛爭 때의 이집트 支援 (1965年 이후), 中東 戰爭에의 積極 介入 (1967年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 運動 탄압 (1968年) 등이 이에 屬한다.

1950年代 後半期 이후로 소련이 이집트의 나세르 (Gamal A. Nasr,

1918—1970), 인도의 네루(Jawahrlar Nehru, 1889—1964), 인도네시아의 스카루노(Achmet Soelrno, 1901 ~ 69), 아프리카니스탄 등 亞·非 후진 地域의 民族主義的 政權을 所謂 「출없는 원조」로서 支援한 것은 美國의 勢力圈에 대한 挑戰인 同時에; 中共의 膨脹에 對한 견제책 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核武器 分野에서 美國과의 軍縮協商을 願한다는 소련이 1965年 이래로 海軍力을 증강하여, 地中海·페르사灣·印度洋·太平洋 一帶로 進出하고, 險峻한 地域에서 上陸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水陸兩用의 軍事力을 保有하고 이를 支援하기 위한 헬리콥터 積載用 航空母艦을 建造하고, 商船 보유량을 急増시키고 있는 것은, 平和共存의 限界를 나타내는 現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67年에는 말레이시아와, 1968年에는 泰國·싱가포르와 各 國交를 開設하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政權과의 關係를 調整하는 한편, 필리핀·台灣·香港과의 關係 增進을 推進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泰國와는 1969年 이래로 通商 關係를 增大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소련과 航空協定까지 締結한바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쿠아라룸푸르에서는 1969年 가을 소련 商品의 見本 展示會가 열렸고, 필리핀에는 소련의 무용단과 文化 使節團이 訪問하는 등의 交流가 있었다.

이제까지 反共 色彩가 濃厚했던 泰國, 필리핀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東南亞細亞 諸國 聯合(ASEAN)의 나라들에 對한 活潑한 接近과, 앞에서 밝힌 太平洋·艦隊의 印度洋 派遣(1968年2月 이후) 등 소련의 最近 動向은 아시아地

域에서의 美国의 介入 縮小 및 수에즈 以東에서의 英国軍의 撤収 등에서 派生될 <真空狀態>를 메꾸고 들어가려는 戰略 戰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中共은 그것을 “修正主義의 소련과 美国이 結託한 중공견제 (containment) 政策”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平和共存下에서는 國際政治의 모든 紛爭이 協商을 通하여 平和的으로 解決될 것이라는 安逸한 想念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平和共存의 限界는 뚜렷하다. 모든 紛爭이 協商에 의하여 平和的으로 解決되는 것은 아니며, 平和共存 때문에 오히려 激化되는 地域的 紛糾이 있음을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九. 共產主義 戰術形態

1948년의 「共産黨 宣言」以來 共產主義者들은 暴力革命에 依한 世界의 共產化라는 一貫된 目標을 追求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共產革命이라는 目標을 추구하는 過程에서 驅使한 戰略, 戰術은 주어진 환경과 時期 및 對象에 따라 갖가지 形態로 나왔고 또 나오고 있는데 「지그 재그戰術」로 불리워 지는 複雜 多樣한 諸戰術 形態를 확연히 分類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 다.

그러나 戰術上의 特性을 中心으로 해서 分類해 본다면

「러시아」型 都市暴動爲主의 武装暴動戰術, 「레닌」의 21개 테 제 제 3 조의 浸透戰術, 革命戰爭의 3大 魔器중의 하나라고 하는 聯合戰線戰術, 政治革命過程에서의 「테러」戰術, 解放戰爭의 手段으로 驅使하는 遊擊戰爭 그리고 1956年 소련 共産黨 第20次 大會에서 提起된 平和共存戰術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共產化戰術이 가지는 特性은 하나의 戰術形態 가 單獨으로 遂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戰術이 相互間 서로 補 完하면서 同時에 또는 時差를 가지고 「世界革命」이라는 目標을 求心點으로 하여 集中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以下 共產主義者들의 몇가지 例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武裝暴動戰術

共産主義 戰術에 있어서 武裝 暴動戰術이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레닌의 革命戰術에 있어서 暴動 戰術이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레닌은 都市 노동자들과 軍隊의 不平不滿을 이용하여 파업과 시위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폭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고 武裝暴動에 의해서 現政權을 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武裝暴動의 戰術的 고려 사항으로 ①함부로 폭동을 일으키지 말 것, 그러나 일단 일으켰으면 끝까지 싸워 이길 것, ② 決定的 時期에 決定的인 場所로 우세한 兵力을 集中할 것, ③ 항상 機先을 制하고 功勢的인 것, ④ 적을 不意에 기습하고, 적군이 집결되기 전에 好機를 포착할 것, ⑤ 조그마한 成功이라도 획득하여 항상 精神的 優越性을 유지할 것 등과 같은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²⁹⁾

마르크스와 레닌은 都市 노동자들을 主力으로 하는 武裝暴動을 흔히 革命 그 자체로 보았다. 都市 人口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과 政府를 배반한 군대가 결탁하여, 무장폭동을 통해 現政權을 타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政權奪取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形成을 보지 못한 後進國에서는 도시에서의 폭동이 容易한 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政府의 힘이 強力하여 곧 진압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무장 폭동은 보통 長期的인 게릴라戰의 展開를 위한 始發點을 이루거나, 게릴라戰에 대한 補助的인 역할을 수행한다. 폭동에 참가한 武裝部隊와 폭동을 제기로 武裝한

者들이 게릴라部隊를 형성하게 된다. 또는 게릴라 部隊가 地方住民을 선동하여 暴動을 일으켜, 이들을 게릴라 部隊로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폭동은 政治鬭爭으로 부터 軍事鬭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政治·軍事的 性格을 띤 鬭爭 形態라 할 수 있다.

第1次 国共合作이 결렬되자 中国 共産党은 1927年 8月1日 南昌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国民革命軍 第15사단과 제24사단 그리고 南昌軍官學校 生徒隊가 이 폭동의 主力을 이루었다. 이들 부대의 指揮官들은 国民革命軍 안에 浸透해 있던 共產主義者 내지는 그 동조자들이었다. 暴動의 失敗와 더불어 이들은 게릴라 部隊를 편성하여, 湖南暴動에서 失敗한 後 1,000余名の 農民들으로써 게릴라 部隊를 조직한 毛沢東軍과 合流하였다. 바로 이들이 中共軍의 骨幹을 이루었고, 그로부터 22年間이라는 長期間에 걸친 革命鬭爭의 推進力이 된 것이다.

1948年 10月, 全南 麗水에서 南勞党이 일으킨 暴動은 国軍 제14연대 안에 浸透해 있던 南勞党 工作員과 地方 共產主義者들의 結合으로 이루어졌다. 이 暴動을 契機로 1,000名에 達하는 智異山地区「人民 遊擊隊」를 편성할 수 있었으며,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都市 暴動을 契機로 게릴라전으로 전환한 例는 1948年の 필리핀이나 말라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테러戰術

共產主義者들은 大衆을 動員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한 戰術로서 테러 戰術을 使用한다. 共產主義者들은 広範圍한 大衆의 지지와 同情을 獲得하고 反政府 感情을 고취하기 위하여 継続的인 선전과 선동을 實施하나, 이것만 으로서는 결코 大衆을 끌어 들일 수 없으므로, 政府側의 指導的 人物이나 공산당에 대한 反對者, 非協調者 그리고 政府側의 警察官이나 官吏 등을 除去하여 政府機能을 無力化해 버리고 大衆動員을 促進하기 위하여, 협박과 殺人, 납치, 放火 등의 테러戰術을 使用한다. 레닌은 우리는 原則的으로 테러 活動을 否定한 적이 없으며 또한 否定할 수도 없다. 테러는 軍事 行動의 한 形態이며 有効하게 使用하면 대단히 좋은 것이다. 또한 한 戰鬪의 어떤 순간, 어떤 조건 하에서는……특히 必須的인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⁷⁾

테러 戰術이 겨누는 目標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政府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 지방관리, 반공 색채가 두렷한 教師나 地方 有志, 그리고 共產主義 活動을 탐지하여 政府側에 申告하는 住民 等 影響力이 큰 中央 및 地方 指導者나 反對者 非協調者들을 除去 또는 無力化해 버림으로써, 大衆들에 대한 政府의 統制力을 마비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 보다도 指導的 少數 集團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北德 武裝共匪들의 1.21 事態처럼 테러로써 不安과 혼란을

야기하여 政府의 無力함을 들어내게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政府에
대한 不信感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일단 테러 活動이 開始되면
法秩序는 이에 대처하기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테러 現場의 目
擊者도 드물거니와 실사 目擊者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새로운 테
러의 위협하에 놓여 있음으로 有口無言이기 일쑤이다. 테러 事件
은 五里霧中에 빠져버리게 되고 政府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며 大
衆은 不安속에 빠지고 社會는 混亂을 거듭하게 된다. 바로 이러
한 結果를 노리는 것이 테러 戰術인 것이다.

세째, 大衆들에게 政府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자기들의
要求에 好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活動에 積極 參與할 것
을 強要하려는 것이다. 蔚珍, 三陟地區에 浸透했던 武裝共匪들 처
럼 부락민을 모아놓고 이들 앞에서 「배반자」나 반대자를 處刑하
는 것이 그 代表的인 例라 하겠다. 이러한 무서운 現實에 當面
하는 住民들은 自己保存 本能의 발동으로 그들의 要求에 好応하거
나, 아니면 적어도 反對할 勇氣를 잃어버리기 마련인 것이다.

自由越南 地域에서는 1965年末까지 10年間に 무려 25,000名
以上の 民間人이 피살 또는 납치되었는데, 특히 「革命戰爭」의 제
2단계로 접어들던 1960~61年 사이에는 年 6,130名の 殺人
을 包含하는 12,000余名의 民間人이 테러에 犧牲되었다. 말라야
에서는 12年間の 공산 반란 기간중에 1856名の 討伐軍이 戰死
한데 비하여, 3,283名の 民間人이 테러에 犧牲되었다.²⁸⁾

共產主義者들의 테러 活動은 大衆動員을 위한 한 手段이기 때문
에 특수한 경우를 除外한다면 그것은 보통 無差別의인 것이 아니

라, 特定人에 대한 選玆的 테러主義 (selective terrorism) 이다.
무차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오히려 大衆의 반발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3. 浸透戰術

共產主義 活動의 가장 基礎적인 戰術은 組織을 擴大 強化하
는데 치중하는 것이다. 訓練된 少數의 職業 革命家들의 戰鬪的
集團인 黨이 組織되면, 이 黨은 精粹主義라는 黨 自體의 組織特
性和 여러 가지로 不利한 外的 環境 때문에 통상 大衆을 獲得하고,
한편으로는 黨員이 될 候補者를 양성하고 試驗하기 위하여, 黨의
伝導帶 (transmission belt)로서의 외곽 단체인 前衛組織을 만
든다. 勞動組合, 農民組合, 青年團體, 女性同盟, 敎員同盟, 文學藝術
同盟, 學生聯盟, 少年 少女團 등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 機能別
로 組織된 이 前衛 組織들은 통상 共產黨의 指導와 조종하에 대
모와 태업 및 파업 등의 先鋒이 되어 大衆들에게 反政府 感情을
고취하는 한편, 이들을 共產黨의 支持者 내지는 同情者로 확보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6.25 動亂 以前 南韓에서 「全國 勞動組合評議會」(全評)나 「民
愛會」이 遂行한 役割이라든가, 現在 日本의 「全學聯」이나 南部
越南에서의 이른바 「제베바 協定 및 世界 平和守護委員會」같은
것이 遂行한 役割은 그 전형적인 例라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의 重要한 戰術的 活動은 民主機構나 合法的 組織體

로의 浸透이다. 軍隊나 警察같은 武裝組織이나, 通信 및 運輸機關 그리고 国会나 政府機構, 이 밖에 放送局이나 新聞社 같은 言論機關과 教育機關 등이 主要 浸透 對象이 된다. 前衛 組織으로 장악하여야 할 勞動組合이나 인텔리 단체 또는 學生團體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들 團體가 중요한 浸透 對象이 됨은 再論할 여지가 없다.

浸透된 公작원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細胞를 組織하고 동조자를 획득하여 必要時에는 언제나 行動할 수 있도록 準備한다. 軍隊 속에 浸透한 工作員들이 軍隊를 叛亂軍으로 전환하여 武裝蜂起의 契機를 마련하고, 통신 기관에 浸透한 工作員들이 通信施設을 破壞하여 政府의 통제 능력을 마비시키고, 言論機關을 장악하여 民心을 소란시키는 한편, 赤色宣傳을 強化하고 大衆組織을 통하여, 大衆들을 반란에로 誘기시키는 것이 浸透 活動의 目標인 것이다. 이것을 프락치아 (Francia) 戰術이라고도 한다. 1949年 우리나라 制憲国会에 浸透한 金若水등 7名の 国会 프락치아 事件이 이런 戰術의 한가지 例로 된다.

4. 遊擊戰術

共產主義의 革命戰術로서 遊擊戰術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毛沢東 이후이다. 낙후한 後進国에서는 都市에서의 武裝暴動 戰術만으로는 도저히 成功할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實際的 經驗을 토대로 하여, 毛沢東은 後進 社会가 지니고 있는 政治·經濟·社会的인 여

러가지 취약성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고, 이들을 動員하고 武裝하여 게릴라戰을 위주로 하는 戰爭方式에 依하여 革命的 目標을 達成한 것이다. 여기서 大衆이라 함은 農民을 말한다. 後進 社會에서는 勞動 供給이 아직 형성되거나 각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都市가 아니라 광활한 農村地域이 革命的 活動 舞臺가 된다. 또한 都市에서와는 달리 短期間에 勝敗를 겨루는 武裝暴動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長期間의 싸움을 통하여 自己의 힘을 키워 나아가는 한편, 적의 힘을 弱화시키는 戰略 戰術로서의 게릴라戰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여 처음에는 農村 산간벽지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이 근거지를 점점 넓혀 가면서 나중에는 최후의 決戰을 감행하려는 것이 게릴라戰의 주요 戰略 개념이다.

게릴라戰術에 관하여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戰術을 使用하면 大衆 鬪爭은 날로 擴大되고,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게 된다. 우리의 戰術은 게릴라 戰術이다. 그리고 그 內容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兵力을 分散하여 大衆을 動員하고, 兵力을 集中하여 적에 대항한다. • 적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後退하고, 敵이 停止하면 우리는 교란하고, 敵이 피로해지면 우리는 공격하고 敵이 後退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 (敵進我退, 敵駐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 • 固定된 地域을 점령하고, 波狀的인 前進策을 취한다. 強敵이 추격해 오면 圓을 그리면서 끌고 다니다가 敵의 小部隊를 포위하는 政策을 취한다. •

•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대단히 우수한 方法으로 대단히 많은 대중을 動員한다. 이와 같은 戰術은 마치 投網하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그물을 펴고, 또한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그물을 잡아 당겨 좁힌다. 그물을 펴서는 대중을 획득하고, 좁혀서는 적에 대항한다. •

이처럼 共產主義 게릴라戰은 단순히 軍事的 作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動員하기 위한 政治的 活動과 統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게릴라戰은 그 自體로서는 現存 政權을 타도하고 政治 權力を 탈취할 수 있는 決定的 싸움의 形態가 아니다. 그것은 正規軍을 育成하고 正規戰으로 전환하기 위한 戰爭의 한 局面이며 한 段階에 不過하다. 即 게릴라戰이란 大衆을 自己 側으로 끌어 들여, 自己의 勢力을 強化하고 敵의 勢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過渡期的 싸움이요, 蓄力戰에 不過한 것이다.³¹⁾

北傀의 金日成도 1964年 2月, 勞動黨 4기 8차 全員會議에서 赤化統一의 方法으로 南韓地域에서 中共이나 베트남식 게릴라戰을 試圖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였으며, 이에 따라 1965년부터 小規模 武裝 간접단을 兩派하였고, 1968년에는 1.21 事態, 蔚珍·三陟 地區에 대한 武裝共匪 만행 사건을 組織했으나, 北傀는 大韓民國의 철통같은 反共態勢, 國民의 철저한 反共意識을 똑바로 認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狹少한 地域이 中共이나 越南에서와 같이 게릴라戰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勸案하지 못하고 冒險主義的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 失敗했던 것이다.

5. 聯合戰線戰術

聯合戰線이란 敵對하는 勢力中 가장 核心的인 部分을 나머지 勢力에서 分離하거나 孤立시켜 擊破키 위해서 그 나머지 勢力과 손을 잡고 共同鬪爭을 벌이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敵對勢力中 가장 重要的 部分을 破滅시키면 이번에는 나머지 勢力中 主要 部分을 分離-孤立-擊破키 위해 또 다시 聯合戰線을 원다. 이렇게 聯合戰線을 反復해서 構築하고 展開하노라면 敵對勢力은 점점 衰弱해져 共產黨 單獨의 힘을 가지고서도 족히 넘어뜨릴 수 있는 段階에 까지 이른다.

이런 狀況이 造成되면 共產黨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敵對勢力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共產黨 專制體制를 樹立한다. 이 聯合戰線 戰術은 바로는 「人民戰線」運動으로 나타내고 또 때로는 「民族統一戰線」運動으로 表現된다.

1930年代 파시즘의 물결이 유럽大陸帝國과 日本을 휩쓸어 蘇聯의 安保가 東西로부터 危脅을 받고 또 이를 各國의 共產黨의 存立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키무니스트-인티내셔널」(제1인티내셔널)은 各國 共產黨에 指示하여 広範圍한 「人民戰線」을 결성함으로써 蘇聯의 安全保障을 強化하고 各國 共產黨의 命脈을 保全코자 했다.

그 當時 共產黨은 社會民主主義 政黨은 勿論 中間派 政黨이나 右翼政黨에 대해서도 聯合提携의 손을 내밀었다. 이 共產黨의 「人民戰線」運動은 1936年 프랑스에서 社會黨과 共產黨의 提携로 단 한번 結實을 보았을 뿐 到處에서 挫折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人民戰線」 勢力과 反人民戰線勢力이

數年에 걸쳐 처참한 內亂을 벌이다가 결국 前者가 完全히 敗亡하고 말았다.

主意할 것은 共產黨의 統一戰線이란 特定 政治狀況에 있어서의 主要한 敵對關係를 克服하기 위해 各階級 내지 各黨派가 제각기의 獨自의인 要求를 保持하면서 제각기의 綱領의 最低綱領上의 一致點에 있어서 일지 政治적으로 協同하는 戰術이기 때문에 統一戰線 內部에 있어서의 階級的인 對立이나 政黨間의 對立은 결코 清算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共產黨은 統一戰線을 破기 以前에도 破고 나서도 社會主義政黨이나 保守政黨에 대해서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憎惡와 敵對意識을 拋棄치 않는다.

이것이 知覺있는 非共產勢力으로 하여금 共產黨의 統一戰線 形成提議를 一蹴 내지 默殺케 하는 根本 理由인 것이다.

民族統一戰線의 典型的인 事例은 1937~45年 사이의 中國의 國民黨과 共產黨 간에 黨外合作의 形式으로 形成되었던 抗日民族統一戰線이다.

1937年 日本帝國主義 勢力이 中國에 대한 全面侵略을 하게 되자 어제까지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國-共 兩黨은 侵込하는 外敵을 앞에 두고 만부득이 共同鬪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抗日民族統一戰線」은 처음부터 同床異夢이었다.

1939年 中國戰線이 完全히 膠着狀態에 빠지고 戰爭이 持久戰的인 性格을 띠면서 갖추게 되자 國-共 兩黨間에는 摩擦-衝突이 頻頻히 일어났다.

그러나 統一戰線은 日本帝國이 敗亡하는 날까지 面目上으로는 維

持되었다.

「抗日民族統一戰線」이 8年間이나 持續하는 동안 共産党은 国民党的 衝擊을 받지 아니하고 党勢와 軍事力을 飛躍적으로 增加할 수 있었다.

抗日戰爭이 일어나기 전 中共의 黨員과 軍隊는 각각 4萬이었는데 1940년에는 벌써 中共의 黨員은 80萬으로 軍隊는 44萬으로 늘어났다.

1945년에 日本軍이 中國에서 逐出되자 共産党은 지난 8年 동안 키워 놓은 힘을 背景으로 国民党과 처음에는 協商하다가 나중에는 全面戰爭을 일으켜 불과 4~5年 사이에 넓고 넓은 中國大陸을 全部 支配하게 되었다.

中國国民党的 悲運은 共産党으로 하여금 統一戰線에 憑藉하여 그 힘을 처음에는 溫存하다가 다음에는 數 10倍로 增強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次大戰 後 스탈린이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리켜 民主主義라고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다.

스탈린은 알타協定이나 모즈담協定의 諸條項의 履行을 拒否한 事實을 隱蔽코자 이처럼 파렴치한 行爲를 하게 된 것이다.

원래 오늘날의 東歐諸國에는 民主的인 政府가 樹立되기로 約束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蘇聯赤軍이 진주한 地域에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를 樹立해 놓고 이들 國家를 가리켜 (人民民主主義國家)로 呼稱하기로 決心했다.

東歐獨裁政治國家에다가 人民民主主義의 看板을 붙이기 위해 스탈린은 東歐諸國의 政權이 共産党和 友黨들의 聯合戰線을 가지고

運營되고 있는 것 같은 偽裝戰術을 취했다.

多黨制나 聯立政權이 完全한 欺瞞이라는 것은 「共産黨의 友黨」이라고 하는 非共産主義 政黨이 共産黨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으며 獨自的인 自主路線을 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조리 肅清해 버린 사실만 가지고도 알 수 있으리라.

1948年 체코슬로바키아 政變으로 東歐共産圈內에서 民主主義 勢力을 完全히 掃蕩해 버린 스탈린은 東歐諸國의 衛星化工作에 拍車를 가했다.

이것은 蘇聯의 強한 軍事力의 持援을 받아 成功했다. 이 스탈린의 戰略의 遺産으로 「人民民主主義戰線」이라는 말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것이 共産黨 一黨專制를 隱蔽키 위한 用語의 操作임은 구차스런 說明이 必要치 않다.

지금 北韓 共産黨은 南韓에 暴力革命氣運을 成熟시키면서 暴力革命이 暴發하여 이른바 「決定的인 時期」가 오면 일거에 武力南侵을 恣行 赤化統一의 野望을 達成코자 用意周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우선 大韓民國 政府를 나아가서는 大韓民國 自体를 破壞 顛覆키 위해 統一戰線을 펴고자 한다.

이 統一戰線構築은 反美, 反政府, 反體制 運動의 広範圍한 大衆을 動員코자 하는 것이므로 「人民戰線」과 「民族統一戰線」의 두 가지 性格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것이다.

共産黨은 어떤 社會階級에 속하는 國民이건간에 - 심지어는 反共産主義라 하더라도 韓半島에서 進出한 美國勢力과 現 韓國政府에 反對하는 勢力이라면 이를 모조리 규합하여 소위 「人民民主

主義革命」을 일으키고자 한다.

그들은 反政府統一戰線을 먼저 形成하여 現政府를 뒤집어 엮고 과도적으로 統一戰線政府를 樹立한 뒤 共産黨이 그 主導權을 掌握하고 非共産勢力을 肅清 除去하여 赤色政府를 만든다. 이를 北韓傀儡 政權에 吸收 統合코자 하는 것이다.

6. 平和共存戰術

「聯合戰線戰術」의 發展된 形態로 看做되는 多極化 過程에서의 「平和共存政策」을 共産主義者들이 驅使하는 政治戰의 一環으로 보아 이를 國際政治의 未來와 關聯해서 戰術的側面에서 把握해 보고자 한다.

가. 「聯合戰線戰術」의 發展된 形態로 看做되는 多極化 過程에서의 「平和共存政策」을 共産主義者들이 구사하는 政治戰의 一環으로 보아 이를 國際政治의 未來와 關聯지어 戰術的 側面에서 把握하여 보고자 한다.

平和共存을 받아 들이는 概念規程에 있어서 우리의 一般的인 概念과 共産主義者들이 가지고 있는 概念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현격한 差異가 있다.

自由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 平和共存에 대한 一般的인 概念은 相異한 「이데올로기」, 社會構造, 經濟體制가 平和的으로 共存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 體制를 달리하고 있는 國家間의 問題處理에 있어서 武力使用을 排除하는 外交政策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共産主義的 解釋에 의하면 「平和共存은 社會主義를 目標로 한 鬭爭하는 勢力, 즉 進步勢力의 強大化를 促進하고 侵略

的인 軍事「블럭」, 外國軍事基地에 대한 人民鬪爭에 利用하고 民族解放運動의 成功을 促進시키는데 있다. . . . 그 社会的 內容으로 말한다면 國際舞台에서 帝國主義 侵略勢力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激烈한 經濟, 政治, 「이데올로기」 鬪爭의 形態이다.」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1956年 「후르시초프」가 社會主義에로 가는 多様な 길에 관하여 言及함에 있어 平和共存을 새로운 共產赤化戰術로서 제기하며 定義한 것이다. 이와같은 두개의 概念上的 懸隔한 差異는 共產主義의 哲學과 道德的 價值基準이 우리의 그것과 相異한 데서 연유한 結果이다. 그런데 共產主義의 道德基準은 階級鬪爭으로부터 비롯된다.

1920年 「레닌」은 「러시아」 共產青年同盟 第3次大會에서 行한 演說을 통하여 낡은 것을 消滅시키고 새로운 것을 생성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道德이라 主張하면서 「우리는 階級的 概念 以前의 것에 起因하는 모든 道德을 拒否한다.

우리는 우리의 道德이 전적으로 無産階級の 階級鬪爭에 利益이 되는 것임을 主張한다.

우리들의 道德은 無産階級の 階級鬪爭으로부터 沿革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立場은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의 民主市民의 道德基準과는 전혀 符合되지 않는 異質的 價值觀의 所産임을 뜻한다. 이와같이 異端的 價值基準에서 出發한 共產主義者들의 平和에 대한 概念 역시 우리의 그것과는 相容할 수 없는 差異를 갖는다. 共產主義者들의 平和(Freedom) 概念은 「戰鬪的 鬪爭을 通해서 얻어지는 또는 必要하면 暴力使用을 通해서 爭取되는 國際的 狀況으로 定義된다. <<蘇聯哲學辭典>>

이와같은 共産主義者들의 歪曲된 價值觀은 共産主義의 歷史的 發展 過程에 있어서의 그 理論의 定立過程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明白해진다. 共産主義者들은 政治와 戰爭을 不可分の 手段이라는 同一次元에 歸하므로서 戰爭과 平和를 同一概念化하여 왔다.

이와같은 現狀은 그들의 獨特한 思考發展段階의 產物이기도 하다. 共産主義者들은 「클라우제비츠」의 「戰爭이란 다른 手段에 의한 政治의 繼續이다.」(《戰爭論》>>클라우제비츠)라는 有明한 命題로부터 出發하여 그들의 平和概念을 定式化하였다.

「레닌」은 이와같은 命題를 基礎로 하여 「戰爭의 核心은 政治이다. 戰爭은 全體中の 一部이고 政治는 全體이다」라 하였고 毛沢東은 그의 《持久戰論》(1938)에서 「政治란 無血戰爭인 反面 戰爭이란 流血統治이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戰爭과 戰略問題》(1938)에서는 「政權은 貢구에서 나온다. 全世界는 專門家 「사피르니키후」는 이를 定式化하여 「戰爭이 政治의 延長이라 한다면 戰爭은 政治의 手段이요, 戰爭을 政治의 手段으로 본다는 것은 戰爭은 平和의 手段이란 말과 同一하며, 戰爭은 戰爭이므로 戰爭이란 平和를 위한 手段이라는 結論에 到達한다」고 定義하였다. 이와같은 共産主義者들의 一連의 見解는 一般的인 우리의 平和概念과는 相容할 수 없는 異質的 價值觀의 結果로서 그들에 의하여 再起된 平和共存이라고 하는 國際政治의 現象은 列國 國際 共産主義가 「마르크스 레닌」主義로 알려진 그들 特有의 異端的 世界觀(唯物史觀)을 實在化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하나의 戰術에 不過한 것이다. 일찍이 自由中國의 蔣總統은 平和共存을 共産黨 政治戰의 基本戰術로 判斷하고 그 虛偽性을 다음과 같이 駁과한

바 있다. 「戰爭에 失敗하면 그들은 곧 平和共存을 내세우고 힘을 기른 다음 平和會談을 破壞하고 武裝叛亂을 일으킨다. 그들이 平和會談을 始作하는 바로 그 때가 그들이 武裝叛亂을 準備하는 時期이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弁証法的인 矛盾의 統一」과 「對立物의 轉變」이라는 것이다」(《政治作戰》: 1971年, 自由中國) 우리가 오늘날 「平和共存」이라고 하는 國際政治現象의 真相을 把握하는데 있어서 共產主義의 이와같은 偽裝平和의 概念과 偽裝共存戰術의 危險性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共產主義者들이 지금껏 使用해 온 平和共存 戰術이 이를 雄辯으로 말해준다.

나. 平和共存은 今世紀의 獨創的 創造物도 아니고 專有物도 아니다. 平和共存은 共產主義가 不利한 狀況에 처하였을 때 항상 使用하여 온 戰術的 國号로서 共產主義運動과 그 淵源을 함께 한다. 平和共存 내지 共存의 最初의 形態는 反對黨 및 敵對勢力에 대한 非暴力的 克服이라는 「엥겔스」(1820-1895)의 1970年代의 過渡期的 共存理論을 基點으로 하여 「카우츠키」(1845-1938)에 의하여 지도된 「제2인터내셔널」(1889-1912)全期間을 통한 改良主義的 平和解決의 立場, 蘇聯共產黨이 「戰略的 基礎」라고 주켜 세우는 「레닌」의 「社會民主主義者들의 두가지 戰術」(1905, 7) 1917年 10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革命을 成功시킨 후 發表한 「레닌」의 「平和에 관한 宣言」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單純한 戰術的 用語로서의 共存概念을 發見할 수 있고 實際的인 戰術的 側面에서 「平和共存」概念의 現實適用을 基準으로 한다면 1918年 「레닌」이 「멘셰비키」와 일시 結託하여 치룬 國內戰爭

으로부터 비롯되며 体系的으로는 1921年 「코민테른」 第3次大会로부터 追跡할 수 있다. 1921年과 1922年에 召集된 「코민테른」 第3次大会와 第4次大会는 國際共產主義의 力量을 增大할 目的으로 政派와 政治信條를 超越한 勞動者 階級の 統一을 目標로 「統一戰線」 形成을 定式化한 바 있고 1924年 「코민테른」 第5次大会와 1926年 第6次大会에서는 「스탈린」에 의하여 소위 黨의 「불제비키」化의 國際的 拡大를 試圖한 「聯合戰線形成」으로 發展되었다. 그런데 期間中 特記할 만한 事實은 平和共存概念에 대하여 「코민테른」이 確實한 戰術로서의 概念을 提示하였다는 점이다. 1928年 「코민테른」은 熱性黨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基本方向을 指示하고 있다. 「蘇聯의 國際政策은 蘇聯의 支配階級 즉 「프롤레타리아」의 利益과 合致되는 하나의 平和政策이다. 이 政策의 目標은 國際共產主義 革命을 守護하는 世界的 革命이 뒤따르는 社會主義 부식작업을 守護하는데 있으며 可能的 限長期間 帝國主義와의 衝突을 뒤로 미루도록 努力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概念은 前述한 바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1956)에서의 「호르시초프」에 의한 「平和共存」 提起說明의 內容과 그 概念이 同一軸線上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共存에 의한 聯合戰線形成 方針을 確固하게 한 共產主義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이를 效果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機會를 捕捉하였다. 그것은 膨脹一路에 있는 「나치스」에 對抗하기 위하여 1933年 「코민테른」 執行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同年 8月 「反팻쇼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것으로 實現되었다.

東方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코민테른」의 聯合戰線形成 原則이

中國大陸에서 2次에 걸친 「國共合作」과 7次에 걸친 「國共協商」의 形態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聯合戰線戰術은 1935年 「코민테른」 第7次大會의 決議에 따라 「과시즘에 길을 비켜 주지 말라」는 口號아래 「反과시즘 民族統一戰線」이 形成을 促進시키었다. 이리하여 聯合戰線戰術은 대단한 威力을 가지고 共產主義의 勢力을 膨脹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바 되었다. 이에 蘇聯共產黨은 1935年의 「코민테른」의 決議를 背信하고 그 赤色帝國主義의 擴散政策을 效果的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1939년에는 「나치」와 「不可侵條約」이란 명목아래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폴란드」領土를 分割併合하였으며 獨逸의 蘇聯侵功이 開始되고부터는 西方 資本主義 諸國家인 美, 英, 仏 등과 軍事的 提携라는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不利한 戰況을 克服할 수 있었고 日本에 대한 不可侵條約의 締結과 廢棄를 거쳐 1945年 「알타」 秘密協定에서는 戰後 양대진영 정책으로 東歐 8個國을 武力併合할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하였으며 戰後에는 이른바 中間地帶(A.A. Latin-America 諸國)에 대한 勢力擴大를 위하여 民族主義, 革新勢力 등에 傾승한 聯合戰線形成에 狂奔하여 왔다.

이와같은 兩極體制下에서의 對決은 4半世紀에 걸친 오랜 冷戰期로 表現되는데 이와같은 時期의 特徵은 戰爭도 은니고 平和도 아닌 그리하여 勝利도 아니고 敗北도 아닌 緊張과 制限的인 地域紛爭의 繼續이라는 現象이었다. 期間中 美·蘇 超強大國은 「리더십」의 행사를 위하여 核武器의 開發과 宇宙競爭이라는 過熱된 国力浪費의 競爭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大小 世界의 紛爭에 參與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核保有國이 다원화 되어 감에 따라 制限된 局地戰이 正規戰을 유발하고 이와같은 紛爭은 擴大되어

核戰으로 「에스컬레이트」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增大하게 되었다.

戰後 世界正義의 代表的 機關로 각광을 받았던 「유우엔」은 이미 韓國戰, 「수에즈」紛爭, 印·파戰爭, 中東戰 등에서 그 無力함이 証明되었고 絶對的 「리더십」을 發揮하던 美·蘇의 影響力도 그 構造的 矛盾으로 인하여 1960年代를 基點으로 하여 점차 退潮를 보이기 始作하였다. 이리하여 世界는 兩極體制를 清算하고 現存秩序를 急激히 破壞하지 않으면서 國家, 地域, 陣營間의 理解를 中心으로 再調整하는 多極體制에로의 힘의 再編成을 摸色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時期에 平和共存은 하나의 外交政策으로 「어필」되기에 充分한 要因을 가지고 再登場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時期에 있어서도 平和共存을 하나의 赤化戰術로 받아 들이는 共產主義者들의 價值基準에는 아무런 變化도 없다.

1960年 9月 「蘇聯 共產黨」 機關誌 「코뮤니스트」 第 13호에 掲載된 「社會主義革命의 레닌理論과 現代」라는 論文에 의하면 「帝國主義와의 平和同盟과 戰爭이라는 두 가지 要素는 서로를 制約하면서 世界經濟와 世界政治의 帝國主義的인 關聯과 相互關係를 이룬다는 同一地盤에서 平和的 鬭爭과 非平和的 鬭爭과의 形態의 交替를 낳게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從前의 主張과 다를 바 없는 교묘한 言語의 遊戲로서 暴力을 拋棄하려 하지 않는 教理가 高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6年後에 開催된 1966年 3月 蘇聯 共產黨 第 23次 大會에서는 「平和共存原則이 植民主義者와 殖民地 压制下에서 犧牲當하는 者와의 關係에 適用될 수는 없다」고 主張함으로써

暴力不拋棄 意思를 더욱 分明히 하고 있다. 요컨대 共存體制下에서도 소위 民族解放戰爭 形態의 制限된 局地戰을 繼續 유발시키고도 持援할 것을 示唆하고 있는 것으로 主目하지 않을 수 없는 內容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提起되었고 그리하여 現實적으로 具體化되고 있는 平和共存體制라고 하는 國際政治現象의 真相은 人類共存的 目標나 理想으로서가 아니라 共產主義가 世界赤化를 위하여 驅使하는 現實適應의 伸縮性있는 戰術임이 明白하여 진다.

다. 東西陣營間에 각기 다른 動機와 必要에서 承認되고 있는 共存體制는 과연 어떠한 結果를 招來할 것인가? 平和共存體制가 加速化되고 持統될 때 世界史는 과연 어떻게 歸結지워 질 것인가?

이와같은 問題는 世界政治史와 重要な 意味를 갖는다.

그런데 未來의인 判斷의 一般的 경우에 있어서의 不確實性 보다도 共存體制的 結果에 대한 豫測은 더욱 不確實하다.

그 理由는 共產主義의 教理와 戰術上의 相互 複雜性 때문이며 平和共存이 共產化 戰術의 一環으로 提起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平和共存은 當爲로서의 出發도 아니며 必然의 結果도 아니었다. 平和共存은 兩體制間의 必要에 의한 承認이자 偶然性의 一致였을 뿐이다. 必要는 絶對的 價值基準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狀況에 따라 可變的일 수 있는 것이며 (不利한 경우를 包含하여) 偶然은 意外性을 수반하는 것임으로 해서 未來에 대한 危險負擔은 免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平和共存體制的 持統的 深化로 惹起될 수 있는 제반 可能性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는 樂觀論的 立場과 悲觀論的 立場에 따라 相異한 可能性

이 提示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樂觀的 見解는 悲觀的 見解에 비해서 부정적인 結論을 導出해 낸다.

樂觀的인 見解에 따르면 共存體制下의 世界는 世界理性의 趨移에 따라 障營間에 걸차 同質性을 回復시켜 나감으로서 共存의 效率을 極大化 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 提기 이후 1963年 8月 美·英과 締結한 蘇聯의 「部分的 核実験 禁止協定」, 1970年 「헬싱키」에서의 美·蘇 戰略武器制限交渉, 同年 蘇聯·西獨間의 武力 不行使宣言, 西獨과 「폴랜드」間의 修交條約, 1971年 「브란트」·「브레즈네프」間의 東西獨 「유우엔」加入 協定, 1972年 「닉슨」의 中·蘇 訪問과 攻擊用 核武器 制限 臨時協定, 美·日의 「시베리아」 開發參與計劃, 中東問題에 대한 平和的 解決展望과 같은 一連의 事實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實들에도 不拘하고 또 다른 事實들에 의하여 悲觀的 見解는 이를 否認한다. 일찌기 國際共產主義는 1956年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提起 以前부터 前述한 「平和共存戰術의 展開過程」에서 예시된 共存戰術을 驅使한 바 있으나 그 結果는 尙시 共產勢力을 擴大하는 데 利用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悲觀的 見解가 갖는 經驗的 背景이다.

사실 國際共產主義가 体系的으로 平和共存의 母體格인 統一戰線戰術을 驅使한 1939~55年에 이르는 16年 동안에 共產主義는 많은 地域을 支配 掌握하는데 成功하였다.

일찌기 「존·간서」가 지난 16年間 共產主義는 5億 7千 484 萬名 以上の 人口와 1千 3百 15萬 1,700 平方 公里의 廣大한 地域을 併呑함으로써 매 時間當 地球表面을 50~60 M/L²

씩 감식하였다는 計算이 나온다고 主張한 事實을 되살리면서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提議 以後의 世界史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事實들의 充分히 立証되고 있음을 본다.

1956年 蘇聯은 「헝가리」의 의거를 有血鎮壓하였고 「바르샤바」 條約機構를 利用하여 最近의 自由化運動을 粉碎하였을 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制限戰, 局地戰은 그칠 사이가 없었다.

東南亞細亞의 熱戰, 世界 到處에서 惹起된 國際共產主義의 이른바 解放戰爭의 劃策과 支援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共產勢力이 作用하지 않은 경우가 全無하였다는 事實이 그것이다.

共存體制의 未來에 관한 樂觀論的인 또 다른 見解는 共存體制가 中·蘇 理念紛爭을 極大化시킬 것으로서 共產圈의 分裂을 高질화시켜 國際共產主義勢力을 점차 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는 傳統的으로 蘇聯에 의한 北方 包圍의 歷史的 恐怖를 안고 있는 中共으로 하여금 東南아시아와 歐洲를 연결한 印度洋과 저중해를 연한 南邦包圍權을 造成시켜 蘇聯을 逆包圍함으로서 中·蘇 理念紛爭을 永統化시켜 共產圈을 永久分裂시킬 수 있다는 見解이다.

이와 같은 豫想은 1960年代를 一貫한 激烈한 理念紛爭과 여기에서 進一步한 國境紛爭, 앞으로의 對決을 위한 措處로 보이는 國境線一帶의 相互 100萬이 넘는 兵力의 增強, 蘇聯의 印度洋에서의 顯著한 海軍力 增強 및 점차 열도를 더해 가는 相互誹謗 中東 및 東南亞 紛爭 地域 問題解決에 있어서 露呈시킨 中·蘇間의 異見 등에 根拠를 두고 있다. 그러나 悲觀的인 見解는 이와 다르다. 問題는 그렇게 單純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다른 側面에서 中·蘇의 紛爭이란 것이 과장된 國際共產主義의 謀略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非共產國民들은 閉鎖된 共產陣營으로부터의 단편적인 外信에 의해서 中·蘇 紛爭을 概念化 하여 왔을 뿐이다.

果然 中·蘇 紛爭이 實質적으로 그들을 얼마만큼 弱화시켰는가 는 疑問이다. 中·蘇의 紛爭은 形式的이고 觀念적인 것이었을 뿐 現實적이거나 實際적인 內容은 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결 같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통적 繼承者임을 自處하고 있고 또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을 拋棄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0年代의 中·蘇 理念紛爭의 焦點이 알려진 바와 같이 平和共存에 대한 教理解釈上的 差異였다던 70年代에 들어와서 中·蘇가 함께 平和共存을 하나의 戰術로서 公認하고 있는 現實과 關聯하여 說明하기는 容易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側面에서 볼 때 中·蘇間의 理念紛爭이라는 것이 알려진 바와는 달리 國際共產主義가 自由陣營을 기만하기 위한 逆宜적인 方法일 수도 있다는 可能性까지도 提起시켜 준다.

「골어즘」이 「유럽은 유럽의 손에 의해서」라는 「슬로우건」을 내세웠던 것처럼 共產赤化 過程에서, 유럽은 「러시아」에 의해서, 아시아는 中共에 의해서 第3地域은 中·蘇의 共同戰線 또는 攻擊軸線을 달리한 聯合戰線의 形成등 伸縮性 있는 戰術의 구사로서 오래 전에 中·蘇가 밀약하였을 수도 있다는 可能性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는 問題이다.

사실 內的으로 中·蘇가 平和共存을 提携된 共產戰術로 驅使하고 있다면 그것은 共產陣營에게 軍事戰略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國際政治上에 있어서도 戰略的인 防禦從深을 연장하고 攻擊軸線을 다양하게 提供하는 方便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와 可能性은 좀 다른 次元의 것이긴 하지만 平和共存의 期間 中에 共產主義 活動이 合法化되어 있는 國家에서 社會主義 諸政党和의 연장수립으로 合法的인 돌파구를 형성한 後 이를 確大하여 점차적으로 赤化하여 나갈 수도 있다는 可能性이다. 劣勢한 共產黨이 社會主義諸政党和의 과도기적 聯政을 여서 議會民主主義를 통하여 赤化를 기도한 跡跡은 오래다.

19世紀 後半에 共產黨이 獨逸社會民主黨과 聯政을 시도하였다가 失敗한 경우가 그것이고 一時的이긴 하였으나 프랑스 人民戰線 內閣의 成立(1936 ~ 37)과 1936年 서반아에서의 人民戰線(Peoples Front)과의 勝利(서반아內亂 1936.7 ~ 39.3의 도화선) 그리고 世界 第2次大戰 以後 프랑스 共產黨에 의하여 시도된 聯政에 의한 赤化 기도가 그것이다. 프랑스의 境遇 비록 그것이 「드골」의 강력한 반발로 분쇄된 바 있으나, 그로부터 28年 後인 1974年 5月 프랑스 총선거과정에서 프랑스 공산黨과 聯合戰線을 편 左派의 「미테랑」후보가 보수파. 테스탱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共存體制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憂慮할만한 사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日本, 이탈리아등 共產黨의 活動이 合法化되어 있는 世界 50여 개 國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 可能性이며, 平和共存 體制下에서 共產黨의 活動을 合法化하는 國家의 數가 점차 增加할

것이라는 展望 아래 이와같은 危險性은 더욱 增加한다.

勿論 社會主義 諸政黨과 共產黨과의 연정의 成功이 即刻的인 共產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兩極 體制에 比하여 共產主義의 變遷을 더욱 容易하게 할 수 있는 可能性이 增加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分斷國이나 모든 紛爭地域 問題處理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은 連정을 主張하여 왔다는 사실과 경우는 좀 다르지만 「라오스」가 連정 樹立後 좌경화 現象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은 이와 같은 우려를 具體化한다.

平和共存이 名實相符 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人類의 理想에 符合되는 바람직한 體制가 될 것이다.

그러나 共存의 相對가 共產主義일 때 방심은 絶對 禁物이 된다. 이것은 위에서 言及한 國際共產主義 發展過程에서 惹起되어 온 歷史的인 여러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嚴肅한 教訓이기도 하다.

라. 「平和共存」의 潮流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든간에 關係 없이 國際政治現象으로 具體化 되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現象은 冷戰體制에 比하여 陣營間의 國際的 結束을 점차 弱화, 와해시켜 가리라는 것이 豫想되므로 이제까지 弱少民族·國家에 대하여 安保上 重要한 방과계 役割을 하여 온 國際支援力을 점차 弱화시키리라는 것 또한 必然的인 結果도 豫想할 수가 있다.

世界大戰과 核의 恐怖, 그리고 國家利益 등으로 인하여 強大國들은 紛糾에의 積極的인 관여를 기피하려 할 것이다.

더우기 平和共存體制下에서 美國을 위시한 自由陣營의 國家들이 共產國家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非軍事的인 것일지라도 하등의

干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 반하여 共產主義 國家들에게는 小規模戰爭과 宣傳, 顛覆活動 등으로 世界赤化를 위한 잠식을 許容하는 雨傘이 될 수도 있음을 勘案할 때 共存體制下에서도 국지전, 非正規戰은 더욱 增加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國家間의 치열한 실리 追求 競爭과 生存競爭은 世界的인 資源不足危機에 편승하여 開發途上國들에게는 더욱 큰 壓力으로 加重되어 올 것이다.

結局 共存體制는 理念과 體制의 表面的 對立이 「이데올로기」 鬭爭을 包含한 內面對立으로 持續化되고 深化되는 現實에 不過한 것으로 現象維持를 그 基調로 삼고 있기 때문에 後進國이나 開發途上國으로 불리워 지는 國家나 民族에게는 바람직한 體制라 볼 수 없고 오히려 強大國들에 의해 主導되는 平和共存體制가 弱少民族 國家의 利害關係를 度外視할 수 있는 可能性이 增加할 것이다.

十. 結 語

共產主義者들은 그들 特有的 暴力可能的 戰略·戰術을 驅使하면서 所謂 「辯証法的·發展法則」이 適用되어 비약의 法則에 의하여 世界는 革命에 의해서만 改造되고 前進하며 對立되어 있는 矛盾은 統一된다는 信仰을 믿고 있다.

그들이 提唱하는 것이 平和共存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간에 窮極的으로는 暴力鬭爭의 手段에 의해서 世界는 共產主義 世界로 變해야 한다는 價值觀에는 變함이 없다.

韓半島의 경우에 있어서도 北韓은 所謂 「平和統一」 「自主統一」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들의 窮極 目標는 武力赤化統一이며 時代와 狀況에 따라 適當한 戰略·戰術을 多樣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不適當하다.

1960年 8月 金日成은 政治制度, 國防, 外交에서의 獨自性을 견지하며 經濟, 文化分野의 融合을 圖謀하자는 이른바 「最高民族會議」나 「聯邦制」나 하는 主張도 實은 그들 特有的 戰術을 구사하는데 不適當한 것이다.

이 같은 偽裝平和攻勢는 70年代에도 繼續되어 왔다.

6.23宣言 發表 10時間 後에 金日成에 의하여 發表된 「高麗聯邦制」의 正體도 이와 다를 바 없는 性質의 것이다.

그들은 7.4共同聲明 精神을 違背하고 一方的으로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 拒否와 新型武器의 導入으로 軍備를 增強하고 나아가 一連의 軍事的 挑發 그리고 西海島嶼에 對한 威脅, 어선의 격침, 나포 등의 武力挑發은 자행하는 한편 聯邦制의 具體的 戰術로 統

一戰線을 形成하여 終局에는 共產革命을 誘導하여 韓半島를 赤化시키겠다는 戰略을 劃策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点에서 우리는 共產主義 戰略·戰術을 보다 正確히 把握하고 나아가 共產主義理念을 克服하는 것이다.